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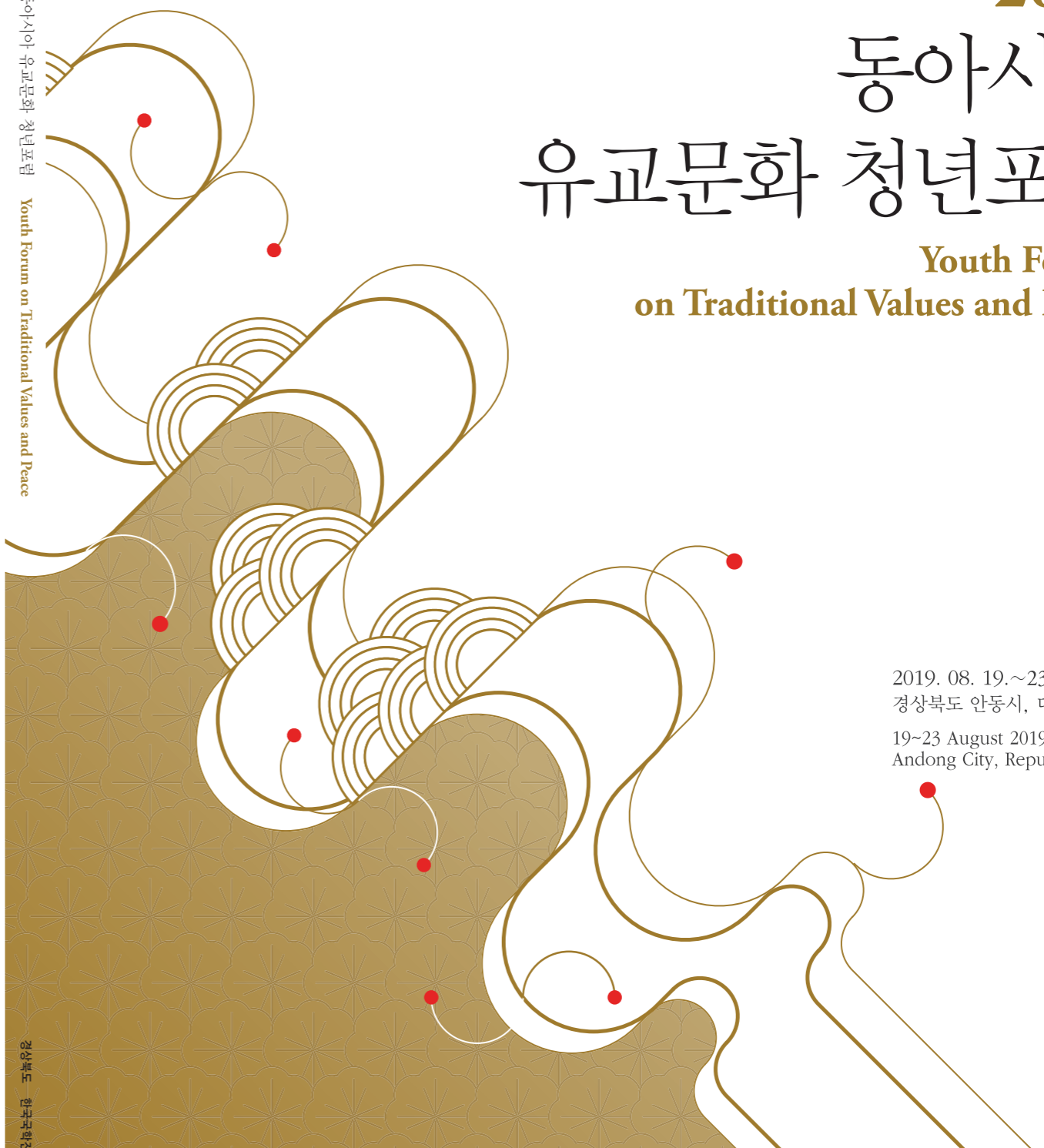
2019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2019. 08. 19.~23.
경상북도 안동시, 대한민국
19~23 August 2019
Andong City, Republic of Korea



2019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2019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I. 사업배경

1.1 행사 배경	6
1.2 행사 목표	6
1.3 주요 주제	6
1.4. 참가자 및 참여기관	7

II. 주요 프로그램 소개

2.1 개회식	10
2.2 강의 및 조별 토의	11
2.2.1. 기초 강의	11
2.2.2. 조별 토의1	13
2.2.3. 조별 토의 2	14
2.2.4. 특별 강의	15
2.3 워크숍	16
2.3.1. 워크숍 1	17
2.3.2. 워크숍 2-3	18
2.4 현장답사	20
2.4.1. 장판각	20
2.4.2. 도산서원	23
2.4.3. 하회마을	25

목 차

2.5 문화수업	27
2.5.1. 탈춤 1	27
2.5.2. 탈춤 2	29
2.6 폐회식	31

Ⅲ. 부 록

3.1.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34
3.2. 참가자 및 관계자 리스트	39
3.3. 참여기관 리스트	41
3.4. 전체 행사 일정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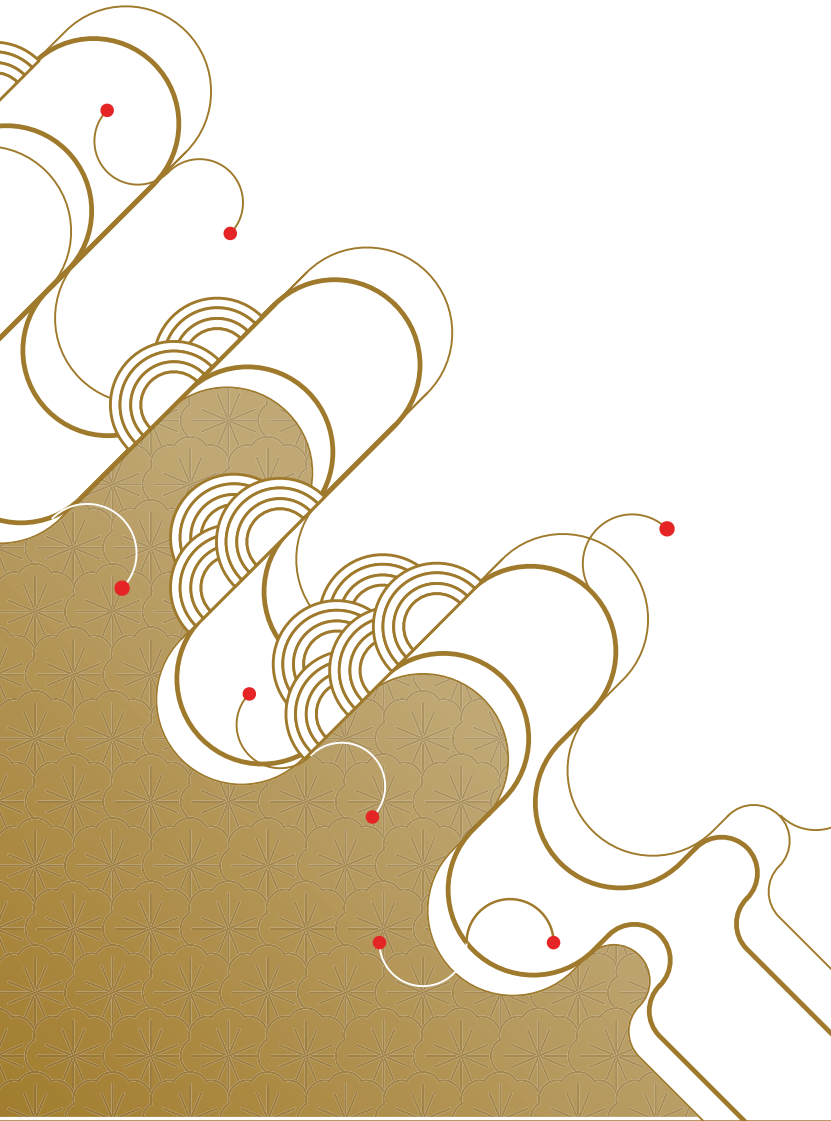


I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2019 최종보고서

○
사업배경



1.1. 행사 배경

‘분쟁’과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지금의 동아시아 상황은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각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인 유교를 21세기 세계시민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 공동체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을 개최했다. 비록 유교는 동아시아의 근대화과정에서 때로는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인들에게 의미 있는 키워드이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청년들이 유교의 가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 나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써 마련되었다.

1.2. 행사 목적

- 유교와 세계시민주의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유교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전통 가치와 평화에 관한 청년들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함
- 동아시아 청년들이 유교를 21세기의 보편적 윤리의 틀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1.3. 주요주제

- 전통 가치와 평화의 이해
- 우리의 일상 속 유교에 대한 재조명
- 세계시민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미래 논의

1.4. 참가자 및 참여기관 (*세부내용은 2 & 3 참조)

- 이번 포럼에는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 청년이 참석했다. 각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한국 9명, 중국 9명, 일본 10명, 베트남 10명, 총 38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으며, 한국국학진흥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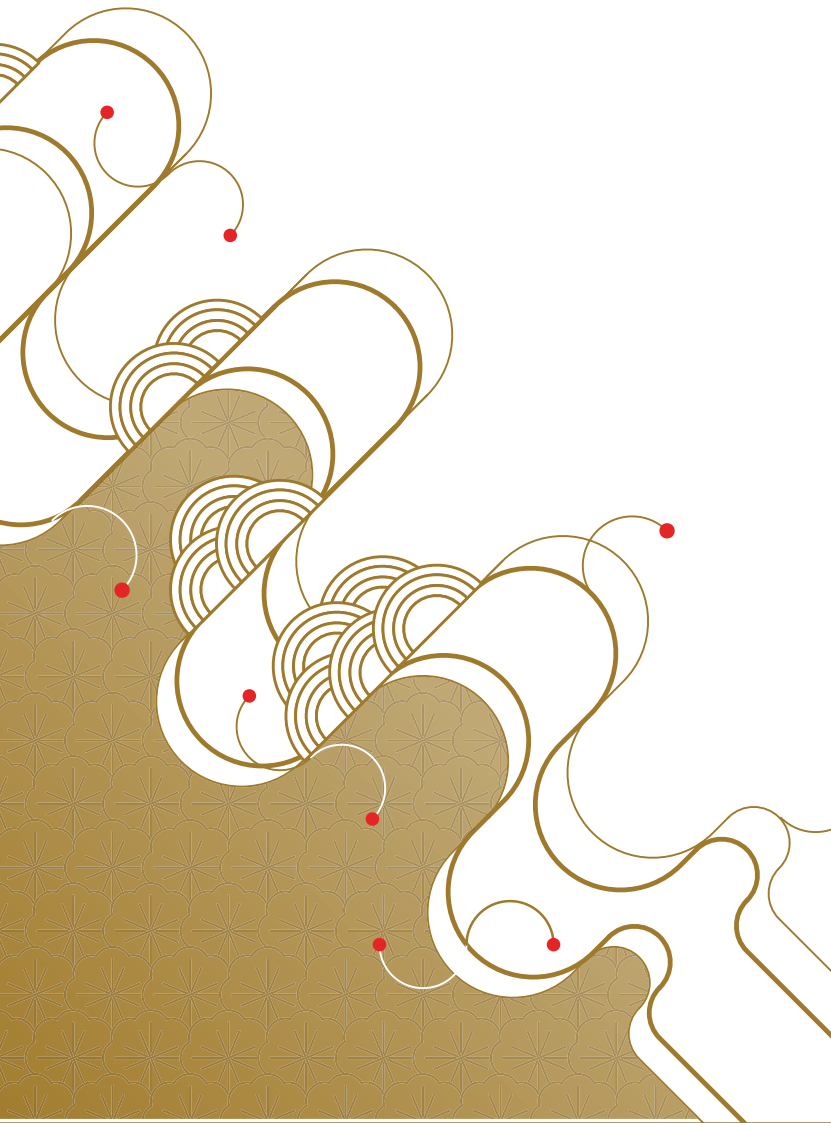
개회식 단체사진(2019.8.19/월,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

II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2019 최종보고서

○
주요 프로그램
소개



주요 프로그램 소개

2.1. 개회식

사회자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센터장)
개회사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환영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축사	한재성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과장)



[사진 2] 한국국학진흥원
조현재 원장의 개회사

개회식은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조현재 원장은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유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이 꿈꿔왔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이 유교의 가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조현재 원장은 참가자들이 초대받은 안동시는 한국의 도시 가운데 유교 문화의 흔적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역사적 흔적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평화의 가치를 돌이켜보기를 요청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 가치인 유교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감정을 넘어서고,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인류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끄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를 당부했다.



[사진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의 환영사



[사진 4]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한재성 과장의 환영사

경상북도 한재성 문화예술과장은 축사를 통해, 유교의 정신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21세기 속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아야 할 정신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4개국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토론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2.2. 강의 및 조별 토의

기초 강의
(2019.8.19./월)

“동아시아의 유교의 과거와 미래”
강의자: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



포럼 첫날 서울대학교 서경호 명예교수는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유교”라는 주제로 기초 강의를 했다. 서경호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 모두 유교문화권에 속했던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각 나라마다 유교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교문화로는 매해 수 만 명이 방문하는 중국 산

동의 공자 묘(Confucius Tomb Shandong Province)를, 베트남에 남아있는 유교 유산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 황조의 요새 (Citadel of Hue)’를 꼽았다. 한국의 경우, 지폐 속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한국사회 속에서 유교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경호 교수는 유교의 기원과 유교가 잊혀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공자(551-479 BCE)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유교사상은 맹자와 주자에 의해 발전되어 한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상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도덕적인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유교사상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하지만 유교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근대의 시작과 함께 서구와의 대결에서 패하면서 유교는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했다. 근대를 이끈 서구 사상에 대한 동경이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인 유교에 대한 와 거부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경호 교수는 유교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동아시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교는 한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치였으나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21세기의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봄으로써 현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포럼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인간성이 사라져가는 현시대에 유교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사진 6]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는 참가자

조별 토의1
(2019.8.19./월)

오늘,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유교의 흔적들



[사진 7] 일상 속 유교와 관련된 각 나라의 사례를 발표하는 참가자들 (왼쪽 위부터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유교’에 관한 기조강연을 들은 뒤, 참가자들은 국가별로 두 그룹씩 나뉘어 각자의 일상 속에 남아있는 유교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나에게 유교란 00 이다”의 문장의 빈칸을 채워보며, 자신이 생각하는 혹은 경험한 유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유교란 “공기”, “지식”, “친절함”, “문화”, “색” 등이라는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같은 그룹의 친구들과 각 나라의 일상 속 유교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무성극으로 만들어 발표하며, 오늘날 동아시아 4개국에 남아있는 유교의 모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토의 2
(2019.8.20./화)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교



[사진 8] 조별로 세계시민에 대해 나누는 참가자들

두 번째 강의에 앞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참가자들은 다섯 개 조로 모여 세계시민으로써 유교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그룹은 주어진 전지에 사람의 모습을 그린 뒤, 각자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의 핵심가치와 세계시민이 지양해야 할 가치와 태도를 각각 사람의 몸 안과 밖에 자유롭게 적었다. 세계시민의 주요한 가치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타인에 대한 존중, 열린 사고, 언어능력,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낙관적 사고, 이타심, 진실성 등이 언급되었고, 세계시민에 반하는 가치로는 편견, 차별, 비난, 불평등, 이기심 등이 언급되었다. 각 그룹의 발표 후, 참가자들은 서로가 생각하는 유교의 핵심가치에 토론했다. 유교의 핵심가치로는 상호존중, 조화, 수양(self-discipline), 공동체 정신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세계시민과 유교의 핵심가치를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며, 또 그러기 위해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세계시민성과 유교의 핵심가치에 대한 자신들만의 시각을 정립하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의에 앞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참가자들은 다섯 개 조로 모여 세계시민으로써 유교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그룹은 주어진 전지에 사람의 모습을 그린 뒤, 각자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의 핵심가치와 세계시민이 지양해야 할 가치와 태도를 각각 사람의 몸 안과 밖에 자유롭게 적었다. 세계시민의 주요한 가치로는 서로



[사진 9] 다른 그룹의 발표를 경청하며 즐거워하는 참가자들

특별 강의
(2019.8.20./화)

“세계화된 세상에서의 유교와 세계시민주의”
강의자: 한경구 서울대 교수



[사진 10] 유교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강의하는 한경구 교수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과 유교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서울대 한경구 교수의 강의를 이어졌다. 한경구 교수는 “당신은 유교를 따릅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유교의 가치가 얼마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뒤 이어 유교가 강조하는 인간상과 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수양, 정치에 기반한 도덕, 사회적 조화,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문화를 공유했지만, 각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유교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는 유교의 정신과 가치가 과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지향하는 무정부주의(anarchism)나 혹은 서구에 의해 세계에 퍼진 천주교/기독교와 어떻게 하면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다른 문화나 타인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세계시민인 모습이 타인의 시각에서 다름을 이해하는 유교의 행동과 가치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유교의 가치를 재조명할 때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한 부분도 참가자들 스스로 생각해 볼 과제를 안겨주었다.

마지막으로 유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례로 일본을 살펴보았다. 한경구 교수는 일본의 경우 유교를 근대화의 촉진제로 사용한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근대화 성공요인을 몇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일본은 유교적 합리성을 서구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반으로 활용했다는 점과 함께, 일본적 유교가 자기 희생과 천왕에 대한 충성심의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뤘음을 설명했다. 한경구 교수는 강의에서 다룬 주요 질문들과 이슈에 대해 참가자 스스로 고심하고 비판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과거의 지혜를 통해 배움의 자세를 갖기를 당부했다.

2.3. 워크숍

언어 교류 워크숍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배우기



[사진 11] 원으로 앉아 서로 언어를 배우는 참가자들

포럼 기간 동안 4개국의 참가자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의 언어로 기본적인 자기소개 인사 방법과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맛에 대한 표현, 감사와 사과 방법 등을 배워가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워크숍 1
(2019.8.19./월)

The Line

첫 번째 워크숍은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배정되어 함께 활동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종이에 (1)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 (2)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가치, (3) 이번 포럼에 기대하는 바, (4) 평화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등을 짧은 단어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각자의 대답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후 각 그룹은 단어 “선(line)”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최대한 다양한 질문을 생각해 전지에 적도록 요청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하나의 질문을 골라, 해당 질문을 스톱모션으로 표현하고, 다른 그룹은 해당 질문이 무엇인지 맞추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남과 여, 어른과 아이, 사람과 사람, 여기와 저기, 국가와 국가 등을 나누는 경계의 선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나누며, 이번 포럼 기간 동안 서로의 경계선을 지워보기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



[사진 13] 선정된 질문 발표를 하는 참가자들

워크숍2-3
(2019.8.21.-22./수-목)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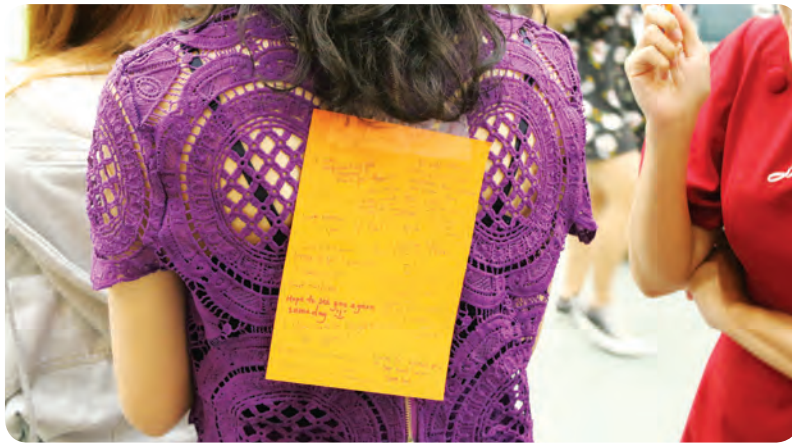
두 번째 워크숍은 세계시민과 유교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유교가 자신의 삶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연애, 결혼, 취업, 회사생활, 기부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세계시민과 유교의 가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지난 4일 동안 포럼에서 체험하고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 짓는 활동으로 포럼과 관련된 단어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참가자들은 회의실 벽에 붙어있는 지난 4일간의 활동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우리 공동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를 작성했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는 폐회식 직전에 발표가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발표 내용을 A4 한 장으로 요약하여 제출했다 (부록 1).

[표 1] 포럼의 핵심 단어

A: Andong	J: Joyful	S: Sympathy
B: Benevolence	K: Kindness	T: Tolerance
C: Confucianism/Curiosity	L: Laughing/ Lee Hwang	U: UNESCO
D: Dosan Seowon	M: Mask Dance	V: Value
E: East Asia	N: Nature	W: Wood Block
F: Friendship	O: Opportunity	X: Xin Chao
G: Global Citizen	P: Peace	Y: Youth
H: Hahoe	Q: Quality	Z: Zen
I: Ideology	R: Ryu SeongRyoung/ Respect	

끝으로 참가자들은 큰 원으로 둘러앉아 이번 포럼에 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고마움”, “친구”, “새로운 학습”, “기쁨” 등을 포럼의 키워드로 선택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각자가 적은 단어가 적힌 색지를 등 뒤에 붙이고 다른 참가자들의 색지에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을 요약하는 종이 한 장을 통해 각 참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가서도 포럼을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6] 서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참가자들

2.4. 현장 답사

이번 포럼에서는 총 3번의 현장 답사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안동 지역에 남아있는 유교의 흔적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교 책판 보관실인 장판각과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이었다. 현장 방문에는 특별히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상호 센터장이 직접 인솔하며 각각의 유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 답사1
(2019.8.20./화)

장판각



[사진 17]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각 현장 답사 후 참가자 단체 사진

첫 번째 답사 장소로 참가자들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각을 방문했다. 장판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교책판과 편액을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장판각은 유교책판 보전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때문에 포럼 참가자들이 장판각에 출입하고 직접 책판을 볼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유교책판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총 3개의 목판 중 하나로 한국 책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양쪽 책판 끝에 있는 '마구리'라는 손잡이가 있는 목판이다. 마구리는 판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여 판의 손상을 줄이며 판 사이에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상업용으로 빠르게 인쇄하려고 만들어진 중국 책판과 달

리 유교사상을 오랫동안 보존하고자 제작된 유교책판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유교책판은 또한 공동체 출판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책판 하나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당시 한 권의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의 책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한 가정이 책판 제작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지역의 지식인 집단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책판에 담겨있는 ‘유교사상’ 때문이었다. 이는 마을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기록에 남기고 싶은 내용으로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책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 책판에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인의 말씀과 지역에서 배출된 학자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책판의 가르침은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었고 유교의 가치가 공동체에 전파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책판에는 ‘인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 보물로 지정된 퇴계 이황의 『퇴계선생문집』과 시운의 법칙을 기록한 『배자에부운략』 목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사진 18] 청호당 편액을 설명하는 이상호 센터장

다음으로는 편액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편액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편액은 건물이나 방의 간판으로, 2~4글자의 짧은 단어로 유교 정신을 담아냈다. 편액은 건물의 이름, 성격 품위를 나타냈으며 건축물의 기능이나 성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편액은 건축물의 얼굴이므로 해당 건물의 크기와 건물이 담고 있는 의미에 적절한 서체와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편액에 적힌 유교 정신은 그 건물 혹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정신으로 후손까지 대대로 내려왔다. 또한 건물이 무너진 경우, 편액을 찢겨 새로운 건물에 걸면 그 건물이 그대로 옮겨져 왔다고 믿었는데, 이는 편액이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지닌 귀한 물건으로 여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판은 당시 이름난 서예가들을 불러 작성했으며, 현재까지 남겨진 현판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9] 도산서원에서 참가자 단체 사진

현장 답사 2
(2019.8.21./수)

도산서원

두 번째 현장체험으로 참가자들은 한국국학진흥원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산서원에 방문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공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한 사당의 기능과 실제로 퇴계 이황이 살아 생전에 유생들을 가르치던 학업의 공간으로 기능을 가진다. 참가자들은 도산서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단풍 나무 길을 걸어가다 서원의 입구에서 하늘의 빛과 구름이 오는 곳으로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강가인 천광운영대를 마주했다. 도산서원 안에는 연못과 우물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정사각형은 곧음과 정직을 의미하고 연못과 우물에 있는 물을 보며,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 본다는 의미로 사물 하나하나에도 정진의 자세가 담겨 있다.

서당은 퇴계 이황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약 500여명의 문하생이 거쳐갔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기숙사 공간인 농운정사는 工(장인 공)의 모양을 하고 있다. 특별히 가운데 공간으로 이어진 시습재와 관란헌은 공간의 이름 만으로도 목적이 드러난다. 우선 시습재는 논어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연습, 학습하는 공간이며, 관란헌은 맹자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파랑을 관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파랑을 관찰한다는 것은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치는 것을 봄으로 자연에서 이치를 꿰뚫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퇴계 선생이 살아갈 당시에는 물이 바로 관란헌 밑까지 밀려들어와 파랑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습재를 통해 책을 통해 이치를 깨닫고, 또한 관란헌에서 자연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 조화로운 학습을 추구하는 이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20] 도산서원 농운경사에서 이상호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있는 참가자들

학습 공간으로 서원의 공간들을 살펴본 뒤, 사당으로 서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퇴계 이황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상덕사로 올라갔다. 보통 유교에서 성인 반열에 오른 경우, 약 100년에서 200년의 시간이 지나 후손들과 제자들에 의해 사당이 세워지는데, 상덕사는 퇴계 선생 서거 후 4년만에 지어졌다. 이는 그 당시 퇴계 이황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유교책판이 본래 있었던 문서저장고를 방문하였다. 유교책판이 오래도록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습도와 통풍이 매우 중요한데, 습도와 통풍을 위해 문서저장고는 문과 창문에 많은 구멍이 있고 토양에는 숯과 소금이 섞여있어 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현장 답사3
(2019.8.21./수)

하회마을



[사진 21] 하회마을 입구에 있는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기념비 앞에서 참가자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하회(河回)마을은 이름 그대로 강물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뜻이며, 낙동강이 큰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물이 풍부한 마을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 마을로 기와와 초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참가자들은 하회마을에서 총 4곳을 방문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삼신당으로 하회마을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곳에는 류중혜가 처음 하회마을 세울 때 심은 느티나무가 위치해 있었다. 하회마을의 역사를 기리는 이 느티나무의 수령은 600년이 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를 데려다 준다고 믿었다. 매해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사람들은 다 함께 마을의 안녕을 비는 축제를 열었는데 한국 탈춤을 대표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도 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현재는 느티나무 주변에 소원을 적어 걸어놓고 있어, 참가자들도 각자의 소원을 적어 느티나무에 소원을 빌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양진당'이었다. 입암 류중영 선생의 호를 따서 입암고택이라 부르며 양진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하회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풍산 류씨의 대종가택이다. 양진당에서는 하회마을의 중요한 인물인 류중영과 그의 두 아들 류운용과 류성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뒤이어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애 류성룡 종택인 '충효당'이었다. 충효당에는 서애 류성룡 선생의 귀중한 저서와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당시 서애 류성룡 선생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재상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집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 집을 둘러 쌓고 있는 담의 높이도 누구나 넘나들 수 있는 높이의 담이었다. 이는 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집의 크기를 어느 규격 이상으로 짓지 말자는 암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문화를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유교의 가치 덕분이었다. 이후 하회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인 '부용대'에 방문해, 하회마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현장학습을 마무리했다.



[사진 22] 부용대에서 하회마을을 배경으로 참가자 단체사진

2.5. 문화 수업

탈춤1
(2019.8.19./월)

하회 탈춤 수업



[사진 23] 김오중 전수조교의 가르침에 따라 탈춤을 추는 참가자들

문화활동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의 김오중 전수조교와 함께 탈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탈놀이는 약 800년전 고려 중엽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홍수, 전염병, 가뭄 등 재앙을 막기 위한 의식으로 시작되었다. 탈놀이는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이뤄졌던 비정기적인 행사였다.

탈놀이에 필요한 탈은 역시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탈의 기원은 약 800년 전 하회마을에 살고 있던 유(류)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 마을의 큰 어른인 산주(탈놀이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탈을 만들어 재앙을 이겨내라는 계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때묻지 않은 숫총각만이 탈을 만들 수 있었는데, 누구도 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안 되었다. 따라서 하회마을에 처음 정착한 씨족인 허씨 성의 사람들 중 때묻지 않은 허도령이 선택되어 마을 입구에 집을 짓고 탈을 만들게 되었는데, 마지막 탈인 이매를 만들던 중 허도령을 사모하던 김씨

처녀가 몰래 허도령의 집을 보았고, 허도령과 눈이 마주쳐 그 자리에서 허도령은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탈은 미완성의 턱이 없는 탈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 24] 할미탈춤 시범을 보여주는 일본 참가자

당시 총 14개의 탈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3개는 사라지고 현재 10종 11개의 탈이 남아있다. 그 원본은 현재 안동 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는데, 이 원본 탈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이런 보존 상태의 비밀은 바로 옷칠에 있다. 하회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턱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탈로, 이 사이에 명주실을 걸어 사람이 말을 하면 턱 부분 역시 움직여 실제로 말을 하는 모양이 보여진다. 각각의 탈은 그 시대의 선비, 양반, 중, 여성, 하인 등 집단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탈과 탈놀이에 대한 설명 뒤, 실제로 탈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탈춤의 기본 리듬인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어깨와 다리를 들며 움직이는 기본 동작을 배웠다. 참가자들은 직접 하회탈을 쓰고 탈춤을 재연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탈춤2
(2019.8.21./수)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참가자들은 지난 시간 문화 수업을 통해 설명을 들었던 탈춤 공연을 보기 위해 하회마을의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에 방문했다. 공연을 보기 앞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성이 살아있는 탈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形形色색의 클레이를 가지고 양반탈, 각시 탈 등 기본 탈 모형에 색을 더함으로 본인만의 탈을 만들며 마음껏 창의성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 뒤, 신명 나는 탈춤 공연을 즐겼다.



[사진 25] 자신이 직접 만든 탈을 보여주는 참가자들

각 공연은 5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면은 서로 연결되진 않지만 사회에 존재하는 위선에 대해 풍자하였다. 공연은 손탈(동물탈)인 두 개의 주지탈춤으로 시작되었다. 두 마리의 상상의 동물이 싸우는 장면을 표현한 공연에서는 역동성을 느끼며 재앙을 물리친다는 의미의 탈춤의 상징성이 잘 드러났다. 첫 번째 장면인 주지탈춤이 끝난 뒤, 백정탈춤 장면으로 넘어가 양반 계급의 위선을 꼬집는 내용의 탈춤을 선보였다. 백정탈춤에서는 백정이 소를 죽이고 양기에 좋다는 불알을 떼어내어 관객들에 팔지만 쉬쉬하는 모습을 통해 위선을 드러내었고, 장면은 할미탈춤으로 넘어갔다. 할미탈춤은 그 당시 여성들의 고된 삶을 드러내고 이를 풍

자하는데, 할미가 베틀을 짜며 읊는 노래에서 어린 나이 과부가 된 애환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중탈과 각시탈이 나와 춤을 추는데, 각시탈이 먼저 나와 고운 선의 각시탈춤을 선보였다.



[사진 26] 하회별신굿탈놀이 중 마지막 장면

그리고 곧 중(파계승)이 따라 나와, 각시의 소피 냄새를 맡고 불교의 도리를 깨는 모습으로 중을 풍자하였고, 그 파계승은 곧 각시와 춤을 추다 초랭이가 나오자 각시를 들쳐 매고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시작하는 초랭이는 파계승의 우순 꼴을 지적하며 사회에 이러한 모양인데 왜 우리라고 춤을 출 수 없냐며 이매를 불러 탈춤을 쳤다. 이매가 들어간 뒤, 곧 양반과 선비가 나왔다. 둘은 사군자와 4서 3경 등에 대해 무지한 이야기를 하며, 이를 통해 지식인과, 신분제와 유교를 풍자했다. 그리고 곧 각시가 나오자, 양반과 선비를 각시들 사이에 두고 춤을 쳤다. 백정이 파는 우랑이 양기에 좋다고 하자 서로 본인의 것이라고 싸우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할미가 우랑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꼴을 지적하고 이매가 나와 공연장을 한 바퀴 돌며 판을 정리했다.

2.6 폐회식

송별사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센터장)
 폐회사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사진 27]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센터장의 송별사

포럼을 마무리하며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센터장은 비록 유교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교가 여전히 긍정적인 가치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몇 십 년 동안의 여러 반복과 대립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이 발견한 유교의 긍정적인 면모는 동아시아의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참가자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까지 기성세대들이 못 해왔던 것들과 잘못 해왔던 것들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 다음 세대에는 더 아름다운 동아시아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상호 센터장은 이번 포럼에서의 만남이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일부터 시작되어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귀배 본부장은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청년들을 축하하며, 이번 포럼이 유교와 세계시민에 대한 지식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 속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 2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귀배 본부장의 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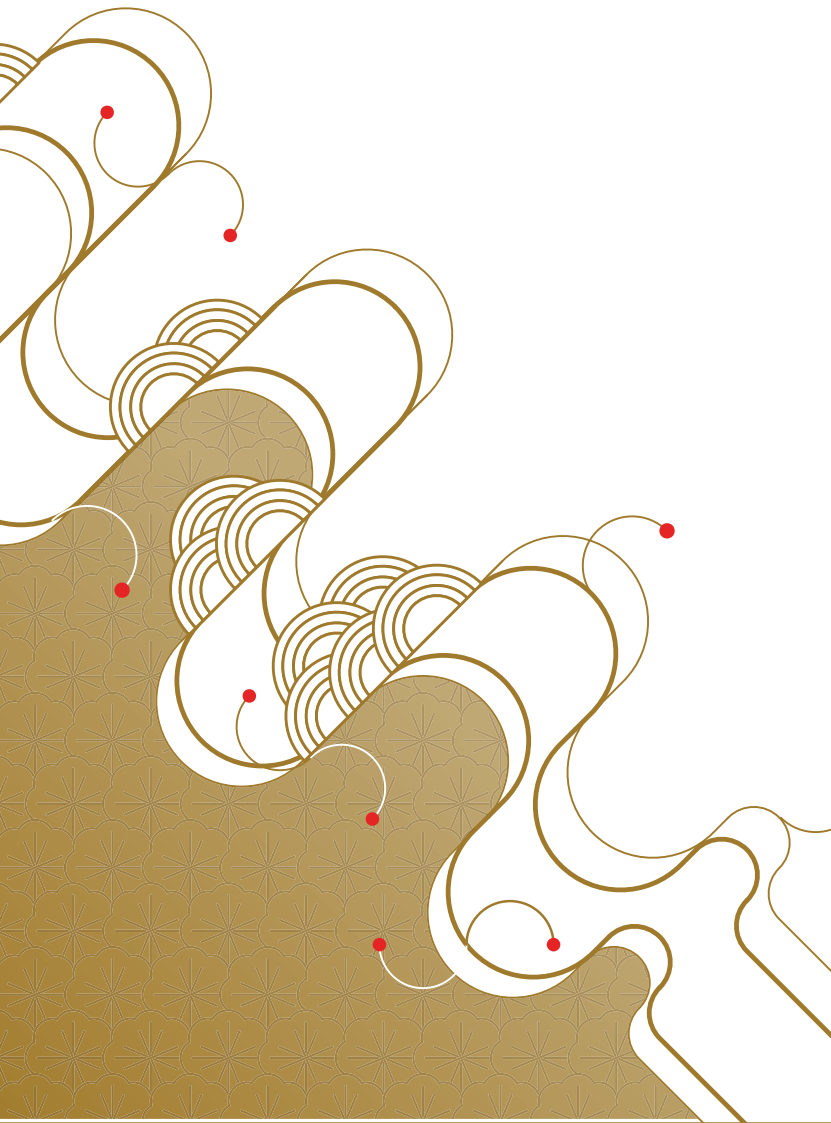
III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2019 최종보고서



부록



부록 1.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참가자 최종발표)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 우리 공동의 미래

1 조

1. 세계시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영어실력과 기술력(technology skills)과 같은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며 전 세계의 지식을 배워야하기 때문이다.
-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나라와 타국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곧 세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나 자신, 내가 속한 공동체,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때에만 비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아래 5가지 가치가 유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 상호존중: 서로 존중하는 것은 서로 잘 소통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 공감능력: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 친밀하고 진실되게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공동체 정신: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 크고 작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자선: 서로를 사랑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통주의(Orthodoxy): 우리는 사회의 무질서한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를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3.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학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일상에 맞닿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우리 문제 외에도 우리 각자가 세계와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한다.
- 가족 단위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청소, 요리, 자녀양육과 같은 가사일을 균형 있게 나누어서 해야 한다.
- 직장과 공동체 단위에서는 우리는 각자의 직위와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경험에 비추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
- 국가단위에서는 국민들이 유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유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컨퍼런스와 포럼을 많이 개최해야 한다.

4. 우리의 다짐

동아시아의 청년으로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한민국 안동시

- | | | |
|---------------|----------------|--------------------|
| • Ai Ganyu | • Nagaya Karin | • Nguyen Thanh Duy |
| • Piao Chunyu | • Choi Jeewon | • Tran Hoai Minh |
| • Chaen Miki | • Kim Min-gwan | |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 우리 공동의 미래

2 조

1. 세계시민은...

- 세계시민으로 한 국가가 아닌 세계의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
- 다름을 특히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는 사람
- 한 국가만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 국제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

2. 유교의 핵심가치

- 1) 적응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다른 문화에 더 유연해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의 무지에 근거하여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을 것이다.
- 2) 관용: 관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3) 집단성
: 집단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 규범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집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단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모이지 않을 것이다.
: 집단성 향상을 위해 개인의 구별되는 특징을 권장한다.
- 4) 존중: 남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증오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 5) 조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3. 우리의 다짐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조화로운 세계 공동체를 이뤄내라.”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한민국 안동시

- Subin Ha
- Li Ran,
- Dang Dinh Giang
- Matsumoto Ikumi
- Sun Wenyue
- Nguyen Ngoc Tram Anh
- Tsuritani Ryuta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 우리 공동의 미래

3 조

1. 세계시민이란?

-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은 세계시민의 기초로 다른 가치를 포용할 수 있게 한다.
- 용서와 건담: 현재 글로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
- 소통 능력: 언어 능력, 사회 능력, 듣기 능력 등을 포함해서 다문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 공통의 가치를 공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통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을 다루기 위한 원칙이다.

2. 유교의 핵심가치

- 자애, 충성심, 변영, 상호 존중, 동정

3. 세계시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발전/개선/극복

- 지속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애로움
- 발전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상호 이해
- 개선하기 위해: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넓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충성심
- 극복하기 위해: 젠더 불평등을 포함한 다름 들을 구별

4. 우리의 다짐

우정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다르더라도, 조화롭게 살 수 있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한민국 안동시

- | | | |
|----------------|--------------------|--------------------|
| • Wang Yueyang | • Funabashi Yusuke | • Nguyen Anh Tuan |
| • Xu Yichao | • Jung Hayoon | • Nguyen Thanh Mai |
| • Gunji Maria | • Park Soeun | |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 우리 공동의 미래

4 조

1.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 자신이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깨닫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과 내가 세계의 일부라고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 세계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 사랑, 이타주의, 평등의식, 포용성, 비판적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해야 하며 또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열린사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식,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2. 유교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사랑, 도덕(morality), 지식, 정직(Honesty)

3. 세계시민으로서 유교의 핵심가치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속/개선/발전/극복할 수 있을까?

- 지식: 포럼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정직: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나 자신에게 솔직 할 것이다.
- 사랑: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며, 부모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소통할 것이다.
- 도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4. 우리의 다짐

- 다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자!
-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One for all, all for one)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한민국 안동시

- Cheng Kang
- Zhang Zhen
- Ishikawa Kaeko
- Narita Masayo
- Seo Sumin
- Nguyen Thi Thanh Hoa
- Pham Chi Duc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 우리 공동의 미래

5 조

1. 우리 공동의 미래

우리의 공동된 미래는 우리가 현대 세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네 가지 주요 이슈 영역을 다루는데 달려 있다. 밝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을 통해 지역 내 잠재적 국가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물질적 부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한 이해와 관용, 포용력을 키워줌으로써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복지를 이룰 수 있다. 더구나, 유교 등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기존의 역사문화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국가간의 적대감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풀뿌리 수준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청년 포럼의 창설이 이러한 공유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세계시민, 왜?

글로벌 시민은 급속하게 현대화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감, 인종, 국적, 지리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세계는 세계화, 기술개발, 세계 각지의 다른 사람들간의 접촉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국경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3. 유교의 핵심가치

우리가 확인한 유교의 다섯 가지 가치는 자비, 자기 수양, 타인과 가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뿌리이다. 유교 고전의 5가지 가치인 renyilizhixin (仁義禮智信)와 미덕의 가치를 융합한 이유는 우리가 국제주의와 유교적 미덕의 가치를 병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어떤 가치는 세계 시민권 내의 다른 가치와 양립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뚜렷한 그리고 개인적인 특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뿌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교적 유산과 가치는 우리가 세계화된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개인으로서 번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세계시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지속하고, 발전하고, 개선하며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 일상 생활에서 글로벌 시민에게 필요한 가치관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축적된 생각, 통찰력, 경험, 지식을 소셜 미디어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학생, 교사, 시민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포럼, 세미나, 워크숍을 제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위챗 페이지 등 온라인 기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둘째로, 가치를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평등, 소수의 권리, 그리고 세계주의에 관련된 다른 미덕과 같은 유교 전통에서 종종 무시되는 사회의 측면을 조명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등주의를 조장하고 가부장제 같은 문화적 특성에 의해 유발된 악행을 폐지하려는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5. 우리의 다짐

“지금 여기 동아시아에 평화와,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대한민국 안동시

- Kang Zhong
- Sangkyu Park
- Dong Anh Nguyen
- Sarii Kurihara
- Seyoon Park
- Anh Tran Puong
- Megumi Sato

부록 2. 참가자 및 관계자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국적	성	이름	소속 대학 및 기관
China	Ai	Ganyu	Hohai University
China	Cheng	Kang	Chi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China	Feng	Wanting	Tsinghua University
China	Li	Ran	Nanjing Normal University
China	Piao	Chunyu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Sun	Wenyue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China	Wang	Yueyang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China	Xu	Yichao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Zhang	Zhen	Sun Yat-Sen University
China	Zhong	Kang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Japan	Chaen	Miki	Rakudoku
Japan	Funabashi	Yusuke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Gunji	Maria	Osaka University
Japan	Ishikawa	Kaeko	Keio University
Japan	Kurihara	Sarii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Matsumoto	Ikumi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Nagaya	Karin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Narita	Masayo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Japan	Sato	Megumi	Nanzan University
Japan	Tsuritani	Ryut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Choi	Jeewon	Korea University
Korea	Ha	Subin	Korea University
Korea	Jung	Hay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Kim	Min-g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Kim	Soe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Park	Sangkyu	Shanghai Fudan University
Korea	Park	Seyoon	Korea University
Korea	Park	Soeun	Korea Univeris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Seo	Sumin	Yonsei University

III. 부록

Vietnam	Dang	Dinh Giang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Nguyen	Anh Tuan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Nguyen	Dong A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Nguyen	Ngoc Tram Anh	Hutech University
Vietnam	Nguyen	Thanh Du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Nguyen	Thi Thanh Hoa	Academ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Vietnam	Nguyen	Thi Thu Van	Ha Noi Foreign Trade University
Vietnam	Nguyen Thi	Yen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Tran	Hoai Mi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Tran Phuong	A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관계자 리스트

성명	소속 기관	직책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장
김명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 선임전문관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장
김형수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기록유산등재
강보승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행정 및 국제교류
안진기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행정, 학예 및 서무
김영찬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유교목판 조사
손승범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삼국유사업무
강혜경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연수 및 행정지원
김가형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석사과정
임예은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석사과정

부록 3. 참여기관 리스트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에 소장된 기록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고 이를 폭넓게 연구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경북 안동에 터를 잡아 전통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지역정체성에 맞는 국학 연구사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경북을 넘어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록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학 연구와 진흥을 다방면으로 선도해가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유교 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 2016년에 ‘한국의 편액’을, 2018년에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우리의 전통기록문화유산을 세계화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국격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 문기관, 단체 간의 연계·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 된 기관다. 이에 전 세계 199개의 국가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등 유네스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자국 내의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응대는 물론 지역적·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서 1954년 설립 이후 유네스코 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국내외 사업을 펼쳐 왔고, 유네스코 본부와 다른 국가위원회로부터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부록 4. 전체 행사 일정표

0일차	2019년 08월 18일 (일)
18:00~19:00	환영만찬
19:00~20:00	아이스브레이킹
20:00~	취침
1일차	2019년 08월 19일 (월)
07:30~08:30	조식
09:30~09:50	등록
09:5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 The Line
12:00~13:00	점심식사
13:30~14:0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 • 환영사 :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축사 : 김부섭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 단체사진 촬영
14:00~15:45	기조강연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서경호(서울대 명예교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장) • 주제 : 유교문화와 동아시아의 정체성
15:45~16:00	휴식
16:00~18:00	조별 토론 : 오늘, 우리 일상 속의 유교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문화강좌 : 안동 하회탈춤 배우기
21:00~22:00	네트워킹 : 치맥
22:00	취침

2일차	2019년 08월 20일 (화)
07:30~08:30	조식
09:15~10:00	팀 빌딩 워크숍
10:00~10:15	휴식
10:15~12:00	조별 토론 : 유교문화 속의 세계시민, 세계시민의 유교문화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강의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 한경구(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주제 : 세계화 속의 유교문화, 세계시민주의와의 만남 • 학생발표 : 유교문화를 통한 세계시민 거듭나기 아이디어 • 질의/응답
14:30~14:45	휴식
14:45~15:45	[워크숍 I]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15:45~16:15	휴식
16:15~18:00	[답사 I]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워크숍 II]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20:30	취침
3일차	2019년 08월 21일 (수)
07:30~08:30	조식
08:30~09:00	답사 준비
09:00~12:00	[답사 II]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산서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문화강좌 : 안동 하회탈 만들기
14:00~15:30	문화관람 : 안동 하회탈춤
15:30~17:30	[답사 III]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17:30~18:00	안동 시내 이동
18:00~20:30	저녁식사(삼겹살 파티)
20:30~21:00	숙소 복귀

4일차	2019년 08월 22일 (목)
07:30~08:30	조식
09:00~10:00	[워크숍 III]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11:00~11:15	휴식
11:15~12:00	발표: 동아시아 청년의 목소리 - 우리의 미래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검토 및 평가
13:50~14:00	휴식
14:00~14:30	폐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사 : 김귀배 과학문화본부장, 이상호 센터장 • 수료증 전달 & 단체사진 촬영
14:45~22:00	대구 답사

5일차	2019년 08월 23일 (금)
07:30~08:30	조식
09:00~11:30	자유시간 및 체크인아웃
11:30~12:00	점심식사
12:00~15:00	인천공항 이동

2019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I. Introduction

1.1 Background	52
1.2 Objectives	53
1.3 Main Themes	53
1.4 Participants	53

II. Summary of Program 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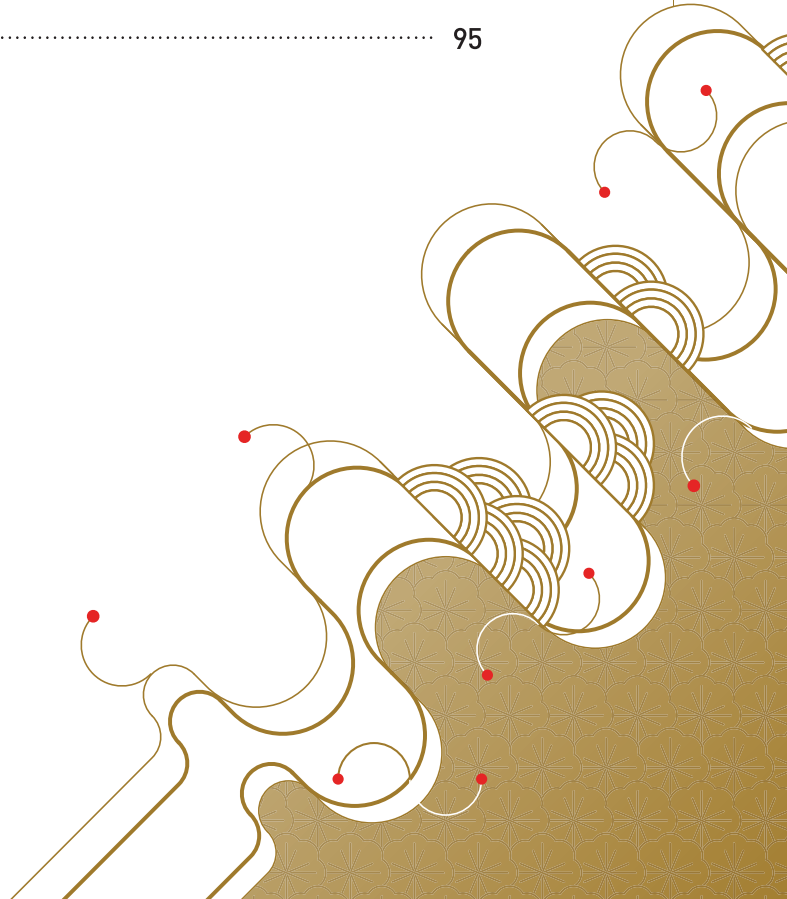
2.1 Opening Ceremony	56
2.2 Lectures and Group Discussions	58
2.2.1. Keynote Lecture	58
2.2.2. Group Discussion 1	60
2.2.3. Group Discussion 2	61
2.2.4. Special Lecture	62
2.3 Workshops	64
2.3.1. Workshop 1	65
2.3.2. Workshop 2	66
2.3.3. Workshop 3	68
2.4 Field Trips	70
2.4.1.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70
2.4.2. Dosan Seowon	72
2.4.3. Hahoe Village	75

Contents

2.5 Culture Classes	78
2.5.1. Mask Dance 1	78
2.5.2. Mask Dance 2	80
2.6 Closing Ceremony	82

III . Annexes

3.1. Final Reports of the Workshop	86
3.2. List of Participants and Administrators	92
3.3.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94
3.4. Program of the Youth Forum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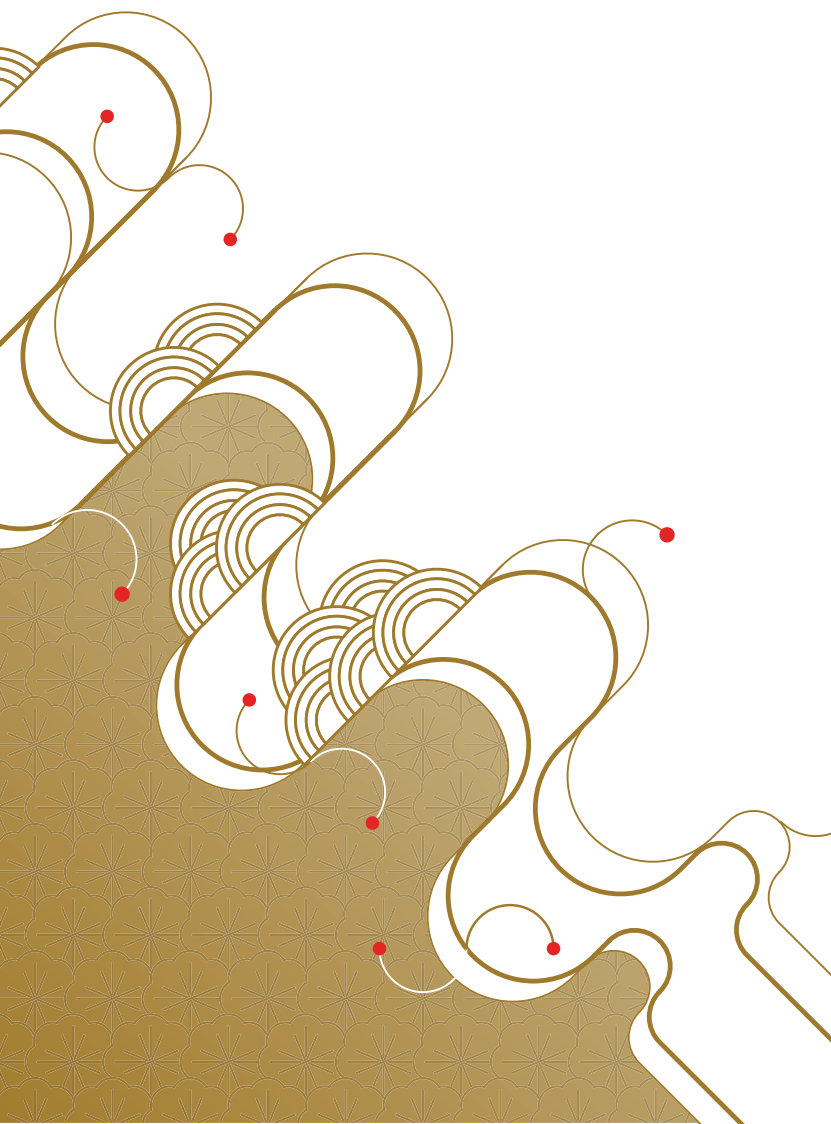
I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2019 Final Report



INTRODUCTION



INTRODUCTION

1.1. Background

When UNESCO was establish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s main objective was to build a lasting peace through the mutual understanding of all humankind.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UNESCO states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More than 70 years later, humankind is still confronted with numerous conflicts, involving the illegal use of force and unprecedented forms of violence. The mission set out by UNESCO in its Constitution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is more valid than ever. The present culture of violence, based on distrust, suspicion, intolerance and hatred, on the inability to interact constructively with those who are different, must be replaced by a new culture based on non-violence, toler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on the ability to solve disputes and conflicts peacefully.

In East Asia, Confucianism has long been regarded as an expression of the region’s traditional values and culture that promote peace in the community. To create a universal ideal for global citizens in today’s society, however, Confucianism needs be reinterpreted, in order to address current tensions and conflicts among people, communities and countries over their own interest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arranged the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s part of efforts to revisit Confucianism. The forum provided a venue to youth from four countries in East Asia with a common history of Confucianism to build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nd to explore how Confucianism could be used to help design a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The Youth Forum discussed the role of Confucianism as a bridge that connects countries in the region and ways in which nationalistic or state-centric views of history could be overcome, as well as the important roles that youth can play as global citizens in positive, cooperative interactions between countries.

1.2. Objectives

- To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among young people to promote peace at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 To promote dialogue among young people in relation to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in the region, focusing on Confucianism
-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share ideas on how to reinterpret Confucianism as a universal ideal

1.3. Main Themes

- Understanding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 Revisiting Confucianism in Our Daily Lives
- Designing the Common Future of East Asia as Global Citizens

1.4. Participants

- Please refer to Annex 2 for the list of participants



Group photo taken on day 1 during the opening ceremony, 19 Augus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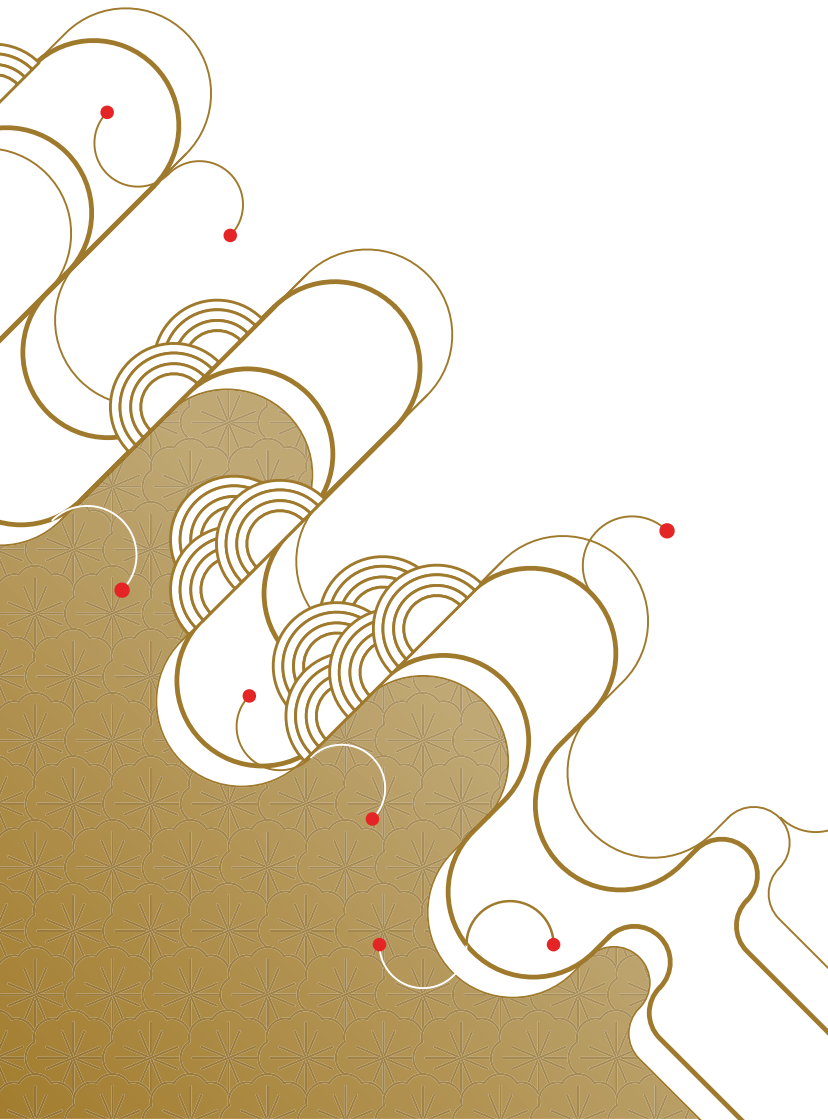
II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2019 Final Report

○

SUMMARY OF THE PROGRAM



SUMMARY OF THE PROGRAM

2.1. Opening Ceremony

Host	Lee, Sangho (Director of Document Heritage Center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Opening Remarks	Cho, Hyunjae (President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Welcoming Remarks	Kim, Kwangho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Congratulatory Remarks	Han, JaeSung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Gyeongsangbuk-Do Province)



President Hyunjae Cho delivering his opening remarks on the first day of the youth forum, 19 August 2019

The opening ceremony began with some special opening remarks given by Mr. Hyunjae Ch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First of all, Mr. Cho welcomed the participants, thanking them for coming all the way to Andong. He emphasized the moral value of Confucianism in the history of East Asia, and the value of peace dreamed of by the region's forefathers. He stated that since the fou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youth forum had these common cultural genes, the participants could understand each other and discuss peace in terms of Confucianism. Thus, he said, the participants had been invited to this place where the vestiges of Confucian culture and ideology still remain, to seek the peaceful values of Confucianism. He thanked Prof. Kyungho Suh, the keynote lecturer of the forum,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for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from East Asia to come together in one place under the theme of peace and Confucianism. He ended his opening remarks by expressing his wish that participants would leave the forum with special memories of making new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of great experiences in Andong.



Mr. Kwangho Kim delivering his welcoming remarks, 19 August 2019

Mr. Kwangho Ki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n delivered a welcoming speech. He said that it was an honor for him to be in Andong, and thanked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for their support for the forum. He continued by stating that Confucianism, a common system of traditional values in East Asian countries, was important for a new world where global citizens were those who took responsibility for tackling global issues in today's society such as ignorance, discrimination, hatred, and environmental issues. He stated his hope that the participants would, during the forum, re-examine the values of Confucianism as global citizens, and find ways to create a better, more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 the countries of East Asia. In conclusion, he stated his hope that all the participants would leave the forum with good memories and experiences and that they would have expanded their perspectives through cooperation and partnership.

Mr. JaeSung Han, the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n delivered some congratulatory remarks. He welcomed all the participants and noted his pleasure at being asked to attend the forum. He thanked KNCU and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for their efforts in arranging the event. He stressed that the four participating countries shared a history of Confucian culture an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at this cultural tradition still remained in the lives of people in these countries today. He also noted that the spirit of Confucianism emphasized the spiritual rather than the material, and that this was something worth pursuing in the current world of materialism. He stated his hope that, through this event, the participants would find common ground among their four Confucian-based countries and would be able to discuss how peaceful relations could be built upon their common values. He concluded by stating his hope that the forum would allow all participants to meet wonderful new friends and create great memorie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Mr. JaeSung Han giving his congratulatory remarks to the youth forum, 19 August 2019

2.2. Lectures and Group Discussions

Keynote Lecture

“Confucianism in East Asia: Its Past and Future”

by Kyungho Suh,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Liber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yungho Suh giving the keynote lecture on Confucianism in East Asia, 19 August 2019

The keynote lecture was given by Kyungho Suh, an honorar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theme of “Confucianism in East Asia: Its Past and Future.” Professor Suh began his lecture by speaking about the common features of China, Japan, Korea and Vietnam, the four countries in East Asia that the participants came from. He stated that all four countries shared Chinese culture and language, and an important shared history of Confucianism and its values, which still remained in all these countries. He noted that a major symbol of the Confucianism remaining in China is the Confucius Tomb in Shandong Province, which is visited by thousands of tourists each year. He also pointed out the Citadel and Imperial City of Hue as remaining physical symbols of the legacy of Confucianism in Vietnam. As evidence of the Confucianism that remains in South Korea, Professor Suh showed a Korean banknote, explaining that what is portrayed on banknotes often symbolizes the value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fact that Toegye Yi Hwang

and Yulgok Yi Yi are both featured on Korean banknotes reflects the importance that Confucianism still has in South Korea. He stated, however, that while the values of Confucianism are still visually obvious, and still closely linked to the lives of people in those countries today, they are being forgotten by younger generations.

Professor Suh then addressed the history of how Confucianism began and how and why it is being forgotten by young people today. He noted that Confucianism originated from the thought of Confucius (551-479 BCE), as expressed through his dialogues with his disciples, which were compiled into the Confucian Analects. Professor Suh explained that Confucianism was further developed by Mencius and Xunzi and emerged as one of the major competing streams of thought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He noted that, during the Han Dynasty, Confucianism was the sole imperial ideology for governance, under the concept of 'All Under Heaven'. He explained the belief that a peaceful society could be made by having a moral king, and that this had been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of society. However, he said that when China was defeated by the West during the Opium Wars, it began to distance itself from Confucian values and put great efforts into adopting western ideas, and that in the 20th century,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had been greatly reduced as the influence of Western theories grew massively.

Finally, the lecture covered the topic of what could be imagined and created today based on the values of Confucianism. According to Professor Suh, Confucianism was once a moderate and highly reliable set of principles, but it had collapsed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Professor Suh asked the participants to think about what it had contributed to society in positive ways in the past and what could be borrowed and developed from it today by reflecting upon the time when Confucianism had been successful. He concluded his lecture by emphasizing that Confucianism was far from being the only candidate for a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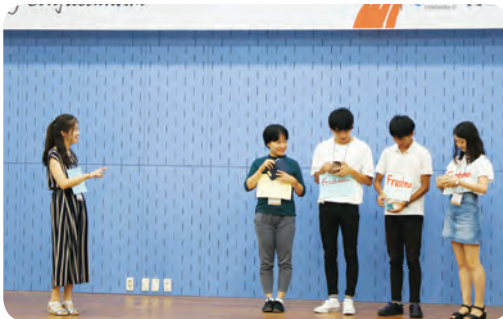
A participant asking a question during a Q&A session,
19 August 2019

that would lead to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of civilization, but that some of its key elements, such as the altruistic virtues of benevolence, mutual respect, and sympathy for others,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inciples for diplomatic media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Group Discussion 1

Monday, 19 August 2019

Confucianism in our Daily Life



Participants presenting a play on Confucian culture in their daily lives today, 19 August 2019

After the keynote lectur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ach with five people from each participating country. The first activity began with the participants completing the sentence “For me, Confucianism is _____” and sharing their own experiences from their answers. The different answers given by participants included words such as ‘air’, ‘knowledge’, ‘kindness’, ‘culture’, and ‘color’. While considering how to fill in the blank in the sentence, each member of the groups had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traces of Confucianism that could be found in

their daily lives. After the first activity, participants created a story and presented a play on the Confucian culture that could be found in their home country. Through the activity, each of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differences and also similarities in the Confucian culture found in their daily lives.

Group Discussion 2

Tuesday, 20 August 2019

Confucianism through the Lens of Global Citizenship



Participants in Group 2 discussing the values of global citizenship before their presentation, 20 August, 2019

Prior to the second lecture, the participants gathered in groups of eight, from a mix of countries, to discuss the core values of global citizenship and Confucianism, and what it takes to become a global citizen. Each group was given a large sheet of paper on which to draw a human figure. On the paper, they wrote down the core values and attitudes of global citizenship inside the figure, and the

opposite values and attitudes outside of the figure. As the main values of global citizenship, participants mentioned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culture’, ‘respect for others’, ‘open minds’, ‘language skills’, ‘optimism’, ‘altruism’ and ‘integrity;’ while examples of opposite attitudes included ‘prejudice’, ‘discrimination’, ‘blame’, ‘inequality’, ‘gender disparity’ and ‘selfishness.’

After each group had shared what they had written for each value and attitude, participants discussed the core values of Confucianism. Interdependence, harmony, self-discipline and community spirit were



Participants enjoying a presentation on global citizenship by other participants, 20 August 2019

mentioned as the most important values of Confucianism. Finally, participants discussed how to apply and develop the values of Confucianism to their lives and what parts of Confucianism should be subject to criticism. Through this activity,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better understand and share the core values of global citizenship and Confucianism and develop their ideas on how these two sets of values could be embedded in their lives.

Special Lecture

Tuesday, 20 August 2019

“Confucianism and Cosmopolitanism in a Globalized World”

by Kyungkoo Han,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yungkoo Han delivering a lecture on Confucianism and Cosmopolitanism, 20 August 2019

Prof. Kyungkoo H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joined the forum to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global citizenship and Confucianism. His lecture began with the question “Are you a Confucian?” The professor then spoke about the traces of Korean Confucianism that he had experienced in his own childhood. In speaking about the aspects of Confucianism that he thought it would be worth saving in current society, he mentioned the ongoing importance of Confucian values such as 1) humanity, 2) relationships, 3) consideration for others, 4) self-discipline, 5) morality, 6) social harmony based on politics, and 7) love and joy. The lecture went on to cover a wide range of questions, two of which were “Confucian Cosmopolitanism?” and “Which Confucianism?”

These two specific questions were covered because, while East Asian countries share the culture of Confucianism, this culture has evolved differently in different countries as the sayings of Confucius were transferred down the generations. In addition, Professor Han spoke about the emerging phenomenon of the re-examination of Confucian values in the light of the values of global citizenship, explaining that the concept of Confucian modernization was conceived with the renaissance of a renewed Chinese civilization, which had been denied until the 1990s.

Professor Han also explained how some aspects of Confucianism could be linked with anarchism, which aims for union of free individuals, and with the Catholic and Christian values spread around the world by the West. He further explained that the image of the cosmopolitan person, who has respect for other cultures and is open-minded, actually exists in the values of Confucianism, in the sense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of others. He also discussed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re-examining Confucianism and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women in modern society. In this regard, he showed that the Confucian scriptures themselves also contained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e status of women, and gave the example of a phrase saying that men should be banned from the kitchen because it would foster compassion, to lead participants to discuss these controversial issues.

The lecture then moved on to look at Japan as a good example of how Confucianism could be fused with modernity. He described Japan as a country where Confucianism was used as a catalyst for modernization and explained some factors in how it was achieved. Professor Han said that, although economic and capital development, and the standards of modern societies, were developed in the West, in Japan, Confucian rationality was considered the basis for accepting Western scientific technology, and Japanese Confucianism served as a catalyst for self-sacrifice and loyalty to the emperor, a factor in Japan's successful modernization. At this time, Professor Han said, Japanese Confucianism emphasized the values of loyalty and courage over knowledge and justice.

Concluding the lecture, Professor Han asked the participants to cultivate the attitude of a global citizen, respecting each other while preserving important ancestral values, through a process

of thinking critically about the kind of key questions and issues that were addressed during the lecture.

2.3. Workshops

Language Workshop

Learning Chinese, Japanese, Korean, and Vietnamese



Participants learning phrases in each other's languages, 19 August, 2019

As the participants in the forum were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 language sharing workshops were held so that participants could learn the basics of each other's languages. On the first day, participants learned how to introduce themselves and say thank you in each of Chinese, Japanese, Korean and Vietnamese. On the second day, they learned how to say that something was delicious and on the last day they learned how to say "I'm sorry" and "It's OK". These language exchange sessions were a valuable opportunity not just to learn some words in other languages, but also for the participants to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Workshop 1

Monday, 19 August 2019

The Line

For Workshop 1,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groups of 7-8 people for discussions and activities. First, each team member wrote answers to the following prompts on a piece of paper: (1) three keywords expressing yourself; (2)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3) what you expect to this forum (4) the image of peace in your mind. Through the process of sharing their answers within their group, participants were able to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and share their thoughts on peace. All the pieces of paper were then put up at the back of the venue so that all the participants could see everyone's answers.

After this group discussion, a large sheet of paper was provided to each group to conduct the main activity of the session, called "The Line". Team members had to write as many questions that included the term "line" as possible. Each group then selected what they thought was the most meaningful and interesting question. The team members then created a mime to act out their question and performed it for the other teams to guess the question. During this process, participants were able to communicate and share their values and perspectives, and work on their cooperative skills. To conclude the workshop, the participants listened to the song "The Line" and read the lyrics, and considered how the lines between people are often actually lines within people themselves.



Groups performing their play on questions related to the term 'line', 19 August 2019

Workshop 2

Wednesday, 21 August 2019

The Voice of East Asian Youth I

The second workshop consisted of activities for participants to reflect on their thoughts and ideas on Confucianism, and how such ideas have affected their identity and their home country.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give their answers to the six questions below using a scale from 1-100 points, and then to line up in order, based on their scores. The six questions given to the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1. Has Confucianism affected your identity a lot?
2. Do you think Confucianism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your country?
3. Do you think you have to get married? Or is marriage a choice?
4. Suppose that you decide to get married. If your parents disagreed, would you still get married or would you give up?
5. Suppose that you have a job which allows you to make money; what percentage of your money can you donate? 0 - 100%
6. Do you think East Asia has a positive future?



[Left] Participants sitting on chairs in an order corresponding to their scores



[Right] One of the participants sharing the reason for giving a specific score in answer to a question, with other participants listening carefully to her answer

The workshop ended by asking the participants the question “Which part do you think is the center of your body?” Most of the participants said the center of the body is the heart because there would be no life without a heart. One of the participants said that the mouth was the center of the body because what you say defines who you are. Others said that the womb and stomach was the center of the body. After listening to all different answers, the coordinator of the workshop shared a story of a man with a cut on his pinky finger. The coordinator said that throughout the whole day, his nurse would be focused only on his pinky finger, no matter where he goes and whatever he does, since if the man did not care for his wound properly, he might end up having to cut off his finger or even his hand. The coordinator suggested that, “maybe the center of your body is the most painful part of your body.” He concluded the story by asking, “Where is the center of the world? Or where should the center of the world and your community be?” The workshop gave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opinions by listening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oughts of other participants, while the final questions summed up the workshop by prompting the participants to think upon what they should do and consider, as global citizens.

Workshop 3

Thursday, 22 August 2019

The Voice of East Asian Youth II

The final workshop of the forum consisted of different activities that enabled participants to reflect back on their experiences and learning over the past four days of the forum. In the first activity, participants creating an alphabet of words related to the forum.

[Table 1] Key words describing the youth forum

A: Andong	J: Joyful	S: Sympathy
B: Benevolence	K: Kindness	T: Tolerance
C: Confucianism/Curiosity	L: Laughing/ Lee Hwang	U: UNESCO
D: Dosan Seowon	M: Mask Dance	V: Value
E: East Asia	N: Nature	W: Wood Block
F: Friendship	O: Opportunity	X: Xin Chao
G: Global Citizen	P: Peace	Y: Youth
H: Hahoe	Q: Quality	Z: Zen
I: Ideology	R: Ryu SeongRyoung/ Respect	



Participants are reviewing the posters they have made during the workshop, 22 August 2019

After this, participants walked around the seminar room and looked at the written work all the teams had created throughout the forum. After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presentations and brainstorming sessions on the meaning of global citizenship, the core values of Confucianism, and ways to develop and integrate those core values into daily lives, each group prepared and delivered a

final presentation to sum up their learning during the forum. The groups also prepared a one-page summary of their work. (Refer to Annex 1 for copies of these summaries.)

After preparing their presentations, the participants sat in a big circle and each wrote down a single word to describe the forum.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and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make friends with other participants in the forum, their joy about new learning opportun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ose opportunities. Finally, they each put a colored piece of paper on their back and wrote messages to each other on these pieces of paper, for each participant to be able to look back on and remember the forum when they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ies.



Participants writing messages to each other on the colored paper attached to each participant's back,
22 August 2019

2.4. Field Trips

Three field trips were arranged during the forum, to sites around Andong, a city epitomizing traditional Korean Confucianism. These visits allowed participants to get a better sense of the deeply rooted history of Confucian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field trip, participants visited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o examine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preserved there. During the other two field trips, they visited Dosan Seowon, a Korean Neo-Confucian academy, and Hahoe Folk Village (a site that reflects the distinctive aristocratic Confucian culture of the early part of the Joseon Dynasty). Mr. Sangho Lee, the Directo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ccompanied the participants as a tour guide, which made the field trips more meaningful, as he explained each site's connection to Confucianism, enabling participants to gain more in-depth knowledge.

Field Trip 1

Tuesday, 20 August 2019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



Participants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20 August 2019

The first field trip began with a visit to the Jangpangak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o see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a collection of woodblocks listed as documentary heritage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Normally, people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Jangpangak as it was built to preserve the woodblocks, not for visitors. Therefore, visiting Jangpangak to see the woodblocks in person was a special and rare experience.



Mr. Sangho Lee explaining the meaning of 'Chung-Ho-Dang' which is written on one of the pyeonaek, 20 August 2019

At the beginning of the field trip, Mr. Sangho Lee explained the structure of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and how they were designed differently from woodblocks made in other countries.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s the 'maguri' attached at the end of both sides of the woodblocks. These maguri reduce damage to the woodblocks by preventing the blocks from colliding with each other. The maguri also assist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blocks, as they create space for air to circulate between the woodblocks when they are stored on a shelf. This is very different from Chinese woodblocks, which were designed to print quickly for commercial use and the mass production of books. The Korean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on the other hand, were designed for the primary purpose of preserving the important teachings and sayings of Confucianism, not for mass production.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s the collective process of production and printing, under which the local people in the village decided collectively what to publish and were involv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production of the woodblocks, as well as dividing up the costs of production. In this way,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were carved by private groups of people to pass on the learning and teachings of sages, and were then preserved and handed down by successive generations of scholars.

Next, Mr. Lee led the participants to another building down the hill fro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where a number of original pyeonaek (hanging woodblocks) are preserved. Participants had a chance to see and learn about pyeonaek, which are large woodblocks with Confucian ideas and teachings written on them in two to four Chinese characters. These were used as signboards on buildings or in rooms. Mr Lee explained that pyeonaek were said to have taken their name and

personality from the building they were hung on, and often reflected the building's function or character. He said that the Confucian spirit of a pyeonaek wa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a way that everyone in the particular building or room should follow. People believed that pyeonaek represented a building like a face on a body, and therefore took care to ensure that the size of the pyeonaek and the calligraphy used on it were appropriate to the size and the function of the building. He also said that, as calligraphy is highly prized in Asia, pyeonaek are considered artworks rather than mere signboards. Participants were able to see original works by Toegye Yi Hwang, Han Seok-bong, and one of the oldest examples of a typeface written on pyeonaek.

Field Trip 2

Wednesday, 21 August 2019

Dosa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y

The second field trip was to Dosan Seowon (Dosan Confucian Academy), located not far fro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Dosan Seowon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at was built to honor Toegye Yi Hwang, a prominent 16th century Confucian scholar. Before entering the Seowon, the participants looked at a map to get an overview of the entire site. Dosan Seowon had two major functions, firstly as an educational institute where Yi Hwang taught during his lifetime, and later as a shrine to honor Yi Hwang. Therefore, it is divided into academic spaces built at the



Participants at Nogunjeongsa listening to Mr. Sangho Lee's explanation of the building, 21 August 2019

time Yi Hwang was alive, and spaces built after his death. To enter the Dosan Seowon, visitors walk along a beautiful road lined with maple trees, and then come to the Cheongwangunyoungdae at the entrance of the Seowon. This platform boasts a fine view of the light and clouds reflected in a river. Mr. Lee told participants that the ponds and well at Dosan Seowon are exactly square, which he

said represented straightness and honesty, and that the water in the pond and well was meant to reflect the mind of the person looking at it.

After entering the Seowon, participants headed to the Seodang, the lecture hall where Yi Hwang taught approximately 500 students. Mr. Lee explained that, although the Seodang was not a big space, it was possible to teach all the students here because the teaching methods of the Joseon Dynasty involved one-on-one tutoring. The participants then visited the Nogunjeongsa, the student dormitory, built in the shape of the Chinese character 學, which means studying. The group then visited two further study spaces, the Siseupjae and the Guanlanheon. The name of the Siseupjae was taken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means a space where people practice and learn constantly. The name of the Guanlanheon, on the other hand, came from the Analects of Mencius, and means a space for observing the waves on water. Mr. Lee explained that ‘observing the waves’ referred to taking lessons from nature, and that, in Toegye Yi Hwang’s time, there was water directly under the Guanlanheon and students were therefore able to observe the water and waves from this area. Therefore, in these spaces students could learn not only through books, but also by studying nature.

The group then went up to Sangdeok Temple where the memorial tablet of Yi Hwang is located. Mr. Lee explained that such shrines had usually been made 100-200 years after a revered person passed away. However, in the case of this shrine, it had been built only 4 years after Toegye Yi Hwang passed away, showing how respected Yi Hwang was at that time. Finally, the group visited the document storage area, where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that the participants had seen on the first field trip had originally been kept. Mr. Lee explained that ventilation and the regulation of humidity were very important for the preservation of wooden blocks, and that this building was also designed very carefully in this respect. He pointed out that there were lots of holes in the doors and windows and that the soil lining the floor had a mixture of charcoal and salt so that the humidity could be maintained constantly.



Group photo at Dosan Seowon, 21 August 2019

Field Trip 3

Wednesday, 21 August 2019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Village



Participants posing in front of the monument at the entrance of Hahoe Village commemorating Hahoe's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21 August 2019

Finally, the participants visited Hahoe Village near Andong. The name Hahoe means 'the river surrounds the village' and originated from the Nakdong River, which flows around the village in a large S shape. The village was known as an excellent place to live as it was a water-rich town. Hahoe is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for its well-preserved traditional Korean houses made with tiled roofs and thatched roofs.

The participants visited four major sites in Hahoe Village. The first place they visited was Samsindang, where a 600-year-old zelkova trees stands at the center of the village. Villagers believed that the tree protected the village, and helped with the birth and growth of children. Every year, on the fifteenth day of the first lunar month, local people came to Samsindang to pray for harmony and peace in the village, and performed the Hahoe Beolsingut Mask Play, which still survives today. Nowadays, visitors write down their wishes and tie them to the zelkova tree in order to make them come true. Each of the participants had a chance to make a wish at the zelkova tree.

Participants then visited Yangjindang, the oldest house in the village. The house belonged to the head of the Ryu clan and is a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Mr. Sangho Lee told participants about some of the important figures who had lived in the place, including Ryu Seong-ryong, a famous court minister who helped defend Korea during the invasion of Japan in 1592.



Participants listening to Mr. Sangho Lee explaining the history of Samsindang, 21 August 2019

The group also visited Chunghyodang, which stood right next to Yangjindang and was the birthplace of Ryu Seong-ryong. In the yard of Chunghyodang, there is a memorial tree that was planted to commemorate a visit by Queen Elizabeth II. Inside Chunghyodang,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see books and other artifacts owned by Ryu Seong-ryong. Mr. Lee made

particular mention of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house. He noted that the size of the house was small for someone of Ryu Seong-ryong's status and the walls surrounding the house were low enough to be scaled by anyone. Mr. Lee said that this was because there was an implicit promise and culture in the village not to build a house over a certain size, which eventually decreased the wealth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Mr. Lee said that this culture of modesty and humility was enabled by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As the participants looked around Chunghyodang, they were able to see the frugality of Ryu Seung-ryong's lifestyle. The participants ended their visit to Hahoe with a walk up to the top of Buyongdae Cliff, located on one of the bends in the Nakdong River, to enjoy a beautiful view of Hahoe village.



Participants posing at Buyongdae, with a view of Hahoe Village in the background, 21 August 2019

2.5. Culture Class

Mask Dance 1

Monday, 19 August 2019

Learning and Dancing the Mask Dance



Participants dancing Talchum,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under the instruction of Mr. Ohjoong Kim, 19 August 2019

As a special cultural activity, the participants learned mask dance with Mr. Ohjoong Kim, an instructor at the Hahoe Mask Dance Drama Preservation Society. Mr. Kim began by giving a brief introduction of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sk play and mask dance, and each of the masks used, before teaching the mask dance. He explained that the mask dance was created during the mid-Goryeo Dynasty about 800 years ago, and was not a regular event, but something special that was performed to help defeat disasters such as floods, epidemics and droughts. He told the legend of how 800 years ago, the Ryu clan, which lived in the village, was agonizing over how to defeat disasters when one day the mountain god appeared in the dream of the head of the village, and he said that the way to overcome disasters was by making masks. There were some conditions: a chosen man, Heo Doyreong (Young Master Heo) had to make a mask and no one should see the process. However, one of the village maidens was curious about Heo Doyreong and looked into the house. Their eyes met as Heo Doyreong was making the last piece of the mask. Heo Doyreong died instantly and as a result, the mask type he was making became an unfinished, jawless one.



One of the participants preparing for a Halmi (grandma) mask dance,
19 August 2019

Originally there were a total of 14 mask types, but only 11 types remain in use, with 3 lost. Old masks that have survived because they are made of hardwearing lacquer, are currently kept at the Andong Folk Museum. Mr. Kim explained that Hahoe masks are the only masks in the world that have a separate moving jaw part which makes it easier for the actors express the vivid facial expressions.

After giving a fun and informative explanation of the masks and mask dance, the participants spent some time learning how to do the mask dance. Mr. Kim taught them how to move their bodies from top to bottom according to the Jajinmo rhythm.

The participants practiced a total of three mask dance movements, the Halmi (Grandma) mask dance, the I'mae (Scholar's Servant) mask dance and the Ch'oraengi (Aristocrat's Servant) mask dance. At the end, some of the participants performed the mask dance and the teacher gave them a mask necklace as a gift.

Mask Dance 2

Wednesday, 21 August 2019

Making Korean Traditional Masks and Watching a Performance of the Hahoe Beolsingut Mask Play

In a second cultural session, the participants visited Hahoe Mask Dance Drama Preservation Society in Hahoe Village to see a performance of the mask dance that they had learned about in the previous day's culture class. Prior to the performance, the participants also had time to create their own masks.



Group picture with the colorful masks made by each participant, 21 August 2019

The performance consisted of five scenes, which were unconnected in terms of story, but each of which satirized the hypocrisy that existed in the society of the time when the dance was created. The performance began with an animal mask dance, depicting a fight between two imaginary animals, which actually represented the defeat of disasters by the village. The second scene was the Bakjeong (Butcher) mask dance, which satirizes the hypocrisy of the noble class. The Butcher kills a cow, tries to sell its testicles, which are seen as being good for men, to the audience and a nobleman, who is reluctant to buy them even though he wants them. The third scene was the Grandma mask dance, which reveals and satirizes the hard life of a young widow, who sings as she weaves on a loom. Next, the Gaksi (Young Lady) mask dance and Pagyeseung (Apostate Monk) mask dance were performed. The Apostate Monk smells the urine of the Young Lady and

breaks the Buddhist doctrine, trying to dance with her. Suddenly, the Choraengi (Nobleman's Servant) appears and criticizes the Apostate Monk. He dances with I'mae (the Scholar's Servant), and soon the Yangban (Nobleman) and Seonbi (Scholar) also appear. Their communication reveals their ignorance, satirizing the intellectuals, noble class and Confucianism of that time. The Nobleman and Scholar also fight to dance with the Young Lady and buy the cow testicles from the Butcher. The performance ended with the Grandma mocking their fight. After the mask dance performance, the participants took a picture with the performers.



Participants watching the performance of Hahoe Beolsingut Mask Play, 21 August 2019

2.6 Closing Ceremony

Farewell Remarks	Lee, Sangho (Directo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losing Remarks	Kim, Kwi-bae (Assistant Secretary-General of the Bureau of Sciences & Culture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r. Sangho Lee delivering farewell remarks at the closing ceremony, 22 August 2019

The forum ended with a closing ceremony, during which Mr. Sangho Lee delivered some farewell remarks. Mr. Lee said that he had come to think about global citizenship and Confucianism from a new perspective after listening to the final presentations of the participants.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e stories shared during the

forum would help to open up new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n East Asia. He suggested that, although many countries had seen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certain ideas in Confucianism, today's people should learn from the mistakes of previous generations and take the positive values and aspects of Confucianism to bring peace to East Asia. He also expressed his hope that the participants would help to develop a new arena of harmony and a more peaceful society in East Asia in the next generation. He ended by saying that he hoped that the relationships built during the forum would not end when the forum ended but instead that the forum would be just a start for relationships that continued for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lives.

Following Mr. Lee's farewell remarks, Kim Gwi-bae, the Assistant Secretary-General of the Bureau of Sciences and Culture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ffered some closing remarks. First of all, he



Mr. Kwi-bae Kim is delivering closing remarks, 22 August 2019

congratulated the participants on the success of the youth forum. He stated that he was moved by the passion and energy of the participants and expressed his hope that the youth forum had served as a useful platform for sharing knowledge about Confucianism and the values of global citizens. He promised that he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ould continue to support the participants in the joyful journey of bring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East Asia. He concluded his remarks by offering particular gratitude to Mr. Lee Sangho, the Directo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Mr. Kang Bo-seung, who had worked very hard to organize the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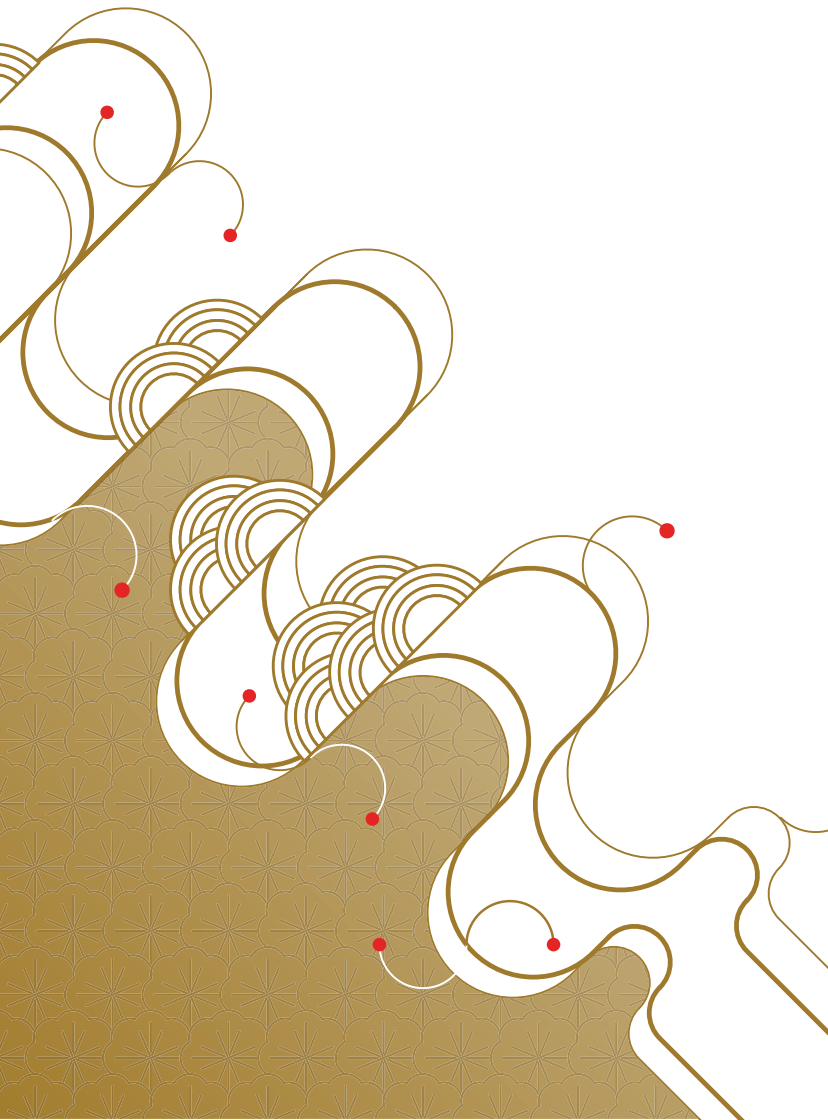
Group photo taken at the closing ceremony, 22 August 2019

III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2019 Final Report

○
ANNEX



ANNEX 1

Final Reports of Participants' Presentations (Summary)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Characteristics of a Global Citizen	Communication skills Knowledge Responsibility	Able to live anywhere Respects others Lives for global benefit Cares about global affairs	Open-minded Forgiveness/ Tolerance Communication Skills Shares Common Values	Is aware of oneself as a global citizen Understands the problem Contributes to solving the problems Awareness of own traditional culture	Able to live in a rapidly modernizing and interconnected world Owns civ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nnects with others Accepts differences Respects others
Core Values of Confucianism	Mutual Respect Sympathy Community Spirit Benevolence Orthodoxy	Adaptation Tolerance Collectivity Respect Harmony	Benevolence Loyalty Propriety Mutual Respect Sympathy	Love Morality Knowledge Honesty	Benevolence Self-discipline Respect for others Family Roots
Our Daily Life as a Global Citizen in terms of Confucianism	(person) Be curious about global issues and other countries (family) Share housework (workplace) Respect others (country) More communication/conferences	N/A	Be benevolent Develop mutual understanding Improve loyalty in human relationships Overcome discrimination	Share knowledge Be honest with others Love myself Help people in need	Share thoughts, insights, experiences & knowledge Create networks Shed light on Confucian traditions Promote egalitarianism Attempt to abolish vices
Last Sentence	"As East Asia youth, we need to act now because the future is in our hands."	"Reach higher, move further, and achieve a more harmonious global community."	"When we have friendship, Everything is OK! Although we are different, we can coexist in harmony."	"Make the planet great again! One for all, all for one."	"Peace now in East Asia, bright future for all."

THE VOICE OF EAST ASIA: OUR COMMON FUTURE

Group 1

1. We think that a global citizen should have these characteristics:

-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English proficiency and other skills such as technology skills. Because we need to communicate with other friends from various countries and also to absorb the knowledge from all over the world.
- Knowledge about our own and others' culture, knowledge and eagerness to care about global issues such as poverty, the environment, the SDGs... Because when we have the eagerness to know more about our country and other countries' issues, we will become more knowledgeable and know better about the world.
- Responsibilities to ourselves, our community, our country and the whole world. Only when we take responsibility, can we change the world.

2. For us, there are five (05) core values of Confucianism, which are:

- Mutual Respect: Respecting each other will be a basic way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live peacefully.
- Sympathy: We need to understand other people and think deeply and sincerely.
- Community Spirit: Although individuals are important, we should know we are always in a big or small society which has to be kept harmonized.
- Benevolence: Loving each other and doing good things will help make a peaceful society.
- Orthodoxy: We need some kind of an organized rule or a standard that can guide people and prevent chaos.

3. As a global citizen, in order to sustain, develop, and improve Confucianism and overcome challenges in our daily life, we need to do as follows:

- For each person, we always have to be curious about global issues and other countries' issues beside our own.
- In the family, we need to balance the housework such as: cleaning, cooking, raising children and so on among husband, wife and other family members.
- In the workplace and community, we need to respect other people regardless of their positions and backgrounds. We also need to evaluate people by their talents and experiences.
- At the country level, we need to have more conferences, forums about Confucianism to help more people understand about Confucianism and how to apply it into our daily lives.

4. Our Voice:

As East Asia youth, we need to act now because the future is in our hands

22 August 2019, Andong-City, Republic of Korea

- Ai Ganyu – China
- Piao Chunyu – China
- Chaen Miki – Japan
- Nagaya Karin – Japan
- Choi Jeewon – Korea
- Kim Min-gwan – Korea
- Nguyen Thanh Duy – Vietnam
- Tran Hoai Minh - Vietnam

THE VOICE OF EAST ASIA: OUR COMMON FUTURE

Group 2**1. Global citizens are...**

- People who can live in anywhere in the world as global citizens, not only as citizens of each nation.
- People who respect each other in every way, especially in culture.
- People who live for global benefit, not for each nation's benefit.
- People who care about global affairs.

2. Core Values of Confucianism**1) Adaptation**

: To develop adaptation, we will be more flexible to other cultures. We will not have any bias based on ignorance of other cultures.

2) Tolerance

: To improve tolerance, we will try to understand other people by not making any judgement.

3) Collectivity

: To sustain collectivity, we will understand and try to follow disciplines.

: To develop collectivity, we will not work just for selfish purposes.

: To improve collectivity, we will encourage distinguishing features of individuals.

4) Respectfulness

: To sustain being respectful to others, we will not speak hate-speech.

5) Harmony

: To sustain harmony, we will also care about nature, not only about humans.

3. Our Voice

"Reach higher, move further, and achieve a more harmonious global community."

22 August 2019, Andong-City, Republic of Korea

- Subin Ha
- Matsumoto Ikumi
- Tsuritani Ryuta
- Li Ran
- Sun Wenyue
- Dang Dinh Giang
- Nguyen Ngoc Tram Anh

THE VOICE OF EAST ASIA: OUR COMMON FUTURE

Group 3

1. Global citizenship

- **Open-minded:** Makes it possible for us to embrace different values, is the basis of global citizenship
- **Forgiveness/Tolerance:** Key factor to overcome the current global conflicts
-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language skills, social skills, listening skills, etc. In this multicultural world, it is necessary to interconnect with others.
- **Sharing Common Values:** To find solutions to conflicts, we have to share common values. It is a basic principle in dealing with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people.

2. Core values of Confucianism

- Benevolence
- Loyalty
- Propriety
- Mutual Respect
- Sympathy

3. As a global citizen, sustain, develop, improve, overcome in our daily life

- To sustain: Benevolence by loving our families and friends
- To develop: Mutual understanding by building global knowledge
- To improve: Loyalty by broadening its essence into the building of trust in human relationships
- To overcome: Discrimination against others including gender inequality

4. Our Voice

- When we have friendship, Everything is OK!
- Although we are different, we can coexist in harmony.

22 August 2019, Andong-City, Republic of Korea

- Wang Yueyang
- Xu Yichao
- Gunji Maria
- Funabashi Yusuke
- Jung Hayoon
- Park Soeun
- Nguyen Anh Tuan
- Nguyen Thanh Mai

THE VOICE OF EAST ASIA: OUR COMMON FUTURE

Group 4**1. Our own definition of Global Citizenship**

“What does it mean to become a global citizen?”

- Being aware that being a global citizen is the first step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self and the world. Being born on Earth as part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e fact that you are the part of the world is different. To understand what the problems are, we need knowledge, love and altruism, a sense of equality, a sense of inclusiveness, critical thinking and a sense of diversity.
- To contribute to solving those problems, we need to be kind and respectful to others, open-minded, optimistic, we need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skills and sense of sustainability.
- Also, awareness of our own traditional culture is important. Traditional cultures should be transmitted through the people.

2. What are the core values of Confucianism?

Love, Morality, Knowledge, Honesty

As a Global Citizen, how can we sustain / improve / develop / overcome in our daily life?

- For honesty, being honest to ourselves at least once a day.
- For love, we should love ourselves and help and talk and communicate with our parents or elderly people to understand their problems and difficulties.
- For morality, we should offer some help to people in need.

3. Our Voice

- Make the planet great again! One for all, all for one

22 August 2019, Andong-City, Republic of Korea

- Cheng Kang
- Zhang Zhen
- Ishikawa Kaeko
- Narita Masayo
- Seo Sumin
- Nguyen Thi Thanh Hoa
- Pham Chi Duc

THE VOICE OF EAST ASIA: OUR COMMON FUTURE

Group 5

1. Our Common Future

Our common future rests upon tackling four major issue areas we commonly share in contemporary global society. In order to achieve a bright future, we should first put efforts into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ly, to improve citizens' livelihoods and economic circumstances within the East Asian community, we should exert ourselves to enhance economic relations among East Asian states. If we ultimately aim to found a potential community of states within the reg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we can not only improve materialistic wealth, but by fostering understanding, tolerance and acceptance through exchange, we can achieve general well-being of the people in the region. Moreover, it is imperative that efforts be made to resolve existing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issues and to eradicate the enmity among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common values we share such as Confucianism. Creation of youth forums for sharing different cultural values and history with each other, especially at the grass roots level, to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can be a starting point for this shared future.

2. Global Citizens, Why?

Global citizens are people who are living in a rapidly modernizing and interconnected world, and they have civ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ability to connect with each other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ity, and geography. The world is becoming ever more a borderless society as a whole due to globaliz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creased contact between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order to survive, thrive and prosper, we should learn to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and at the same time learn to respect and embrace others and others' values.

3. Core Values of Confucianism

Five values of Confucianism we identified are: Benevolence, Self-discipline, Respect for others, Family, and Roots. The reason for this eclectic selection and fusion from the five classic Confucian values of ren yizhi xin (仁義禮智信) is because we want to focus on the merging of the value of cosmopolitanism with the Confucian virtues. Some values of Confucianism are compatible with other values within global citizenship, but in order to preserve some distinctiveness and individual traits, we should maintain our identity, culture and most importantly our roots. Confucian heritage and values in this way can help us maintain ourselves and thrive as individuals in a globalized world.

4. As Global Citizens, how can we sustain, develop, improve and overcome challenges posed by these values in our daily life

Firstly, in order to sustain and develop the values we identified as necessary for global citizens in our daily lives, we can share our thoughts, and the insights, experiences and knowledge we acquired and accumulated through the program with our closest friends, family and colleagues, for instance through social media and personal conversation. We can also create a network of students, teachers and citizens to provide venue for forums, seminars and workshops and to connect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East Asian community. We can put efforts into sharing our thoughts and ideas, and maintaining this communication by continuously updating the contents and posting them on online based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Instagram, Weibo or WeChat pages. Secondly, to improve the values and overcome some obstacles we face, we can shed some light on the often neglected aspects of society in Confucian traditions, such as gender equality, minority rights, and other virtues involved in cosmopolitanism. Starting by changing the existing perceptions of ourselves, we can expand to promoting egalitarianism and attempt to abolish vices induced by cultural traits such as patriarchy.

5. Our Voice

"Peace now in East Asia, a bright future for all."

22 August 2019, Andong-City, Republic of Korea

- Kang Zhong
- Megumi Sato
- Seyoon Park
- Anh Tran Puong
- Sari Kurihara
- Sangkyu Park
- Dong Anh Nguyuen

ANNEX 2

List of Participants and Administrators

List of Participants			
Country	Family Name	Given Name	University / Organization
China	Ai	Ganyu	Hohai University
China	Cheng	Kang	Chi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China	Feng	Wanting	Tsinghua University
China	Li	Ran	Nanjing Normal University
China	Piao	Chunyu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Sun	Wenyue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China	Wang	Yueyang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China	Xu	Yichao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Zhang	Zhen	Sun Yat-Sen University
China	Zhong	Kang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Japan	Chaen	Miki	Rakudoku
Japan	Funabashi	Yusuke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Gunji	Maria	Osaka University
Japan	Ishikawa	Kaeko	Keio University
Japan	Kurihara	Sarii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Matsumoto	Ikumi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Nagaya	Karin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Narita	Masayo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Japan	Sato	Megumi	Nanzan University
Japan	Tsuritani	Ryut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Choi	Jeewon	Korea University
Korea	Ha	Subin	Korea University
Korea	Jung	Hay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Kim	Min-g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Kim	Soe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Park	Sangkyu	Shanghai Fudan University
Korea	Park	Seyoon	Korea University

Korea	Park	Soeu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Seo	Sumin	Yonsei University
Vietnam	Dang	Dinh Giang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Nguyen	Anh Tuan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Nguyen	Dong A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Nguyen	Ngoc Tram Anh	Hutech University
Vietnam	Nguyen	Thanh Du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Vietnam	Nguyen	Thi Thanh Hoa	Academ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Vietnam	Nguyen	Thi Thu Van	Ha Noi Foreign Trade University
Vietnam	Nguyen Thi	Yen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Tran	Hoai Mi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Vietnam	Tran Phuong	A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List of Administrators				
Country	Family Name	Given Name	Organization	Position
Korea	Kim	Kwangho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cretary-General
Korea	Kim	Kwi-ba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ssistant Secretary-General, Bureau of Sciences & Culture
Korea	Kim	Eun-You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irector of the Division of Sciences & Culture
Korea	Kim	Myoung-Shi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nior Programme Specialist
Korea	Cho	Hyunja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resident
Korea	Lee	Sang-Ho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Directo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Kim	Hyung-Su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Membe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Kang	Bo-Seu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Membe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An	Jin-Gi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Membe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Kim	Young-Cha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Membe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Son	Seung-Bu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Membe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Kang	Hye-Je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Membe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Korea	Kim	Ga-H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Student in Global Education Cooperation
Korea	Im	Ye-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Student in Global Education Cooperation

ANNEX 3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KSI) is an organization that conduct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works to spread traditional Korean values through education. The institute is known for its strong research infrastructure. KSI collects research material on Korean studies, and now possesses over 425,000 items of valuable cultural heritage.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SI ran a highly successful national campaign to collect 100,000 traditional carved woodblocks. The organization also provides various exhibitions and training programs at its Confucian Culture Museum and House of Korean Cultur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Republic of Korea (Korea) joined UNESCO as the Organization's 55th Member State, on 14 June 1950.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was established in 1954 and since then has worked actively to strengthen cooperative ties between UNESCO, the Korean government, and various UNESCO-related organizations, both within and outside of Korea. KNCU is also committed to pursuing and publicizing the goals of UNESCO in Korea and to fostering participation by the Korean public in UNESCO activities.

ANNEX 4

Program of the Youth Forum

Day 0	Sunday, 18 August 2019
18:00~19:00	Welcome Dinner
19:00~20:00	Icebreaking
20:00~	Rest and sleep

Day 1	Monday, 19 August 2019
07:30~08:30	Breakfast
09:30~09:50	Registration
09:50~12:00	Orientation and Workshop: The Line
12:00~13:00	Lunch Break
13:30~14:00	Opening Cerem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Remarks: Cho, Hyunjae (President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Welcoming Remarks: Kim, Kwangho (Secretary-General of KNCU) • Congratulatory Remarks: Han JaeSung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rth Gyeongsang Province)
14:00~15:45	Keynote Lecture and Q&A Lecturer: Kyungho Suh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Liber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pic: Confucianism in East Asia: Its Past and Future
15:45~16:00	Break
16:00~18:00	Group Discussion Topic: Confucianism in Our Daily Lives Today
18:00~19:00	Dinner
19:00~21:00	Culture Class 1: Learning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21:00~22:00	Networking: Chi-maek (Chicken and beer)
22:00	Rest and sleep

Day 2	Tuesday, 20 August 2019
07:30~08:30	Breakfast
09:15~10:00	Team Building Workshop
10:00~10:15	Break
10:15~12:00	Group Discussion Topic: Confucianism through the Lens of Global Citizenship
12:00~13:00	Lunch
13:00~13:30	Presentation: Confucianism through the Lens of Global Citizenship
13:30~14:30	Lecture and Q&A
14:30~14:45	Break
14:45~15:45	Workshop I: The Voice of East Asian Youth
15:45~16:15	Break
16:15~18:00	Field Trip #1: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 (UNESCO Memory of the World)
18:00~19:00	Dinner
19:00~20:30	Workshop II: The Voice of East Asian Youth
20:30	Rest and sleep
Day 3	Wednesday, 21 August 2019
07:30~08:30	Breakfast
08:30~09:00	Preparing for the Field Trip
09:00~12:00	Field Trip #2: Dosa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UNESCO World Heritage Site)
12:00~13:00	Lunch
13:00~14:00	Culture Class 2-1: Making Andong Hahoe Mask
14:00~15:30	Culture Class 2-2: Performance of Andong Hahoe Mask Dance
15:30~17:30	Field Trip #3: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UNESCO World Heritage Site)
17:30~18:00	Tour Andong City
18:00~20:30	Dinner: Korean Barbecue (grilled pork) Party
20:30~21:00	Return and sleep

Day 4	Thursday, 22 August 2019
07:30~08:30	Breakfast
09:00~10:00	Workshop III: The Voice of East Asian Youth
11:00~11:15	Break
11:15~12:00	Presentation: The Voice of East Asian Youth – Our Common Future
12:00~13:00	Lunch
13:00~13:50	Review and Evaluation
13:50~14:00	Break
14:00~14:30	Closing Cerem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ewell Remarks: Sangho Lee (Director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enter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Closing Remarks: Kwi-bae Kim (Assistant Secretary-General of the Bureau of Sciences and Culture at KNCU)
14:45~16:30	From Andong to Daegu
16:30~20:00	Tour around Daegu City
20:00~22:00	From Daegu to Andong
Day 5	Friday, 23 August 2019
07:30~08:30	Breakfast
09:00~11:30	Free Time and Check-out
11:30~12:00	Lunch
12:00~16:00	From Andong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019

동아시아 유교문화 청년포럼

**Youth Forum
on Traditional Values and Peace**

기 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학진흥원

기 록 | 김가형, 임예은

편 집 | 김은영, 김명신, 이상호, 강보승

펴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 낸 이 | 김광호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 화 | 02-6958-4164

팩 스 | 02-6958-4250

전자우편 | science@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

디 자 인 | 디자인프리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YT-2019-RP-1